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2.09+10

통권 제113호 (비매출)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2년 9월 5일
발행인 정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9500(대) FAX 02-2203-1974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디자인 한나라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CoverStory 짐 사이델 美 커닝햄그룹 회장

세계적인 레저 테마파크 전문가가 전하는 한국관광의 미래
“가장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를 보여줄
데스티네이션을 만들어라”

머리글 구분형 구분형변화경영연구소 소장

9·10월 프로그램

Issue & Seminar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회원사 탐방 복합 문화예술 공간 G아르체

기획특집 2012 제주 CEO 섬머포럼 지상 중계

- 개회사 조순 前 경제부총리

- 기조강연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

- 인재의 창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건강의 창 김오곤 화성행궁명인한의원 원장

- 재테크의 창 강창희 미래에셋 부회장

- 문화의 창 최규성 대중문화평론가

- 경영특강 I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 경영특강 II 강성욱 GE코리아 총괄 사장

- 경영특강 III 윤석철 한양대 석좌교수

- 전략과 브랜드 박항기 메타브랜딩 대표

- 예술과 리더십 박대성 화백

- 문화와 리더십 한승원 소설가

- 특별강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미래경영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

- 미래의 창 토론회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 염재호 고려대 교수

회원 & 연구원 소식

아카데미뉴스

발행인편지

이인식칼럼



일 침

一
針

꼭 막힌 생각을 단숨에 뚫는 고전의 바늘 끝

진흥탕 같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찾을까? 정민 교수는 간결한 문장에 날카로운 사유를 담아 흐트러진 생각에 일침을 놓는다. 생각을 잡아둘 뿐 아니라 막힌 생각까지 꿰뚫는 정문일침. 마음, 공부, 세상, 정치로 이어지는 100개의 바늘 끝이 답답한 가슴부터 복잡한 세상까지 통쾌하게 해결한다. 곁에 두고 오래 읽어 마땅하다.

정민

2012
삼성경제연구소
SERI CEO
추천 도서

“일침, 그 한 바늘 끝에 마음이 화들짝 돌아온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 선보이는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사유!

똑바로 보고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진흙탕 속, 먼지 구덩이다. 혀는 칼이 되고, 말은 독침이 되어 여기저기서 날아와 박힌다. 정신도 덩달아 몽롱하다. 이럴 때 정문일침이 필요하다. 그 한 바늘 끝에 막혔던 혈도가 풀린다. 달아났던 마음이 화들짝 돌아온다. 글 제목이 모두 네 글자다. 이른바 4자성어다. 네 글자에 담긴 뜻이 넓고 깊다. 『서연』 중에서



정민 鄭珉 한양대 국문과 교수.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일수록 간명한 통찰이 필요하다. 고작 네 글자로 시대의 담론을 이끌어 내는 지적 전통을 구현했다.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다산의 재발견』, 『미처야 미친다』, 『삶을 바꾼 만남』,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비슷한 것은 가짜다』, 『한시미학산책』, 『꽃들의 웃음판』, 『성대중 처세어록』, 『죽비소리』, 『마음을 비우는 지혜』, 『내가 사랑하는 삶』,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 『돌 위에 새긴 생각』, 『다산어록청상』, 『책 읽는 소리』, 『스승의 옥편』, 『초월의 상상』,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등을 펴냈다.



296쪽 | 14,000원

지금은 고전을 읽어야 할 시간



삶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다. 자기 몫의 삶을 잘살 수만 있다면 책 한 권 보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문제는 삶이 졸렬해졌다는 점에 있다. 살다 보니 우리는 그날 닥치는 일이나 그 시각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에만 겨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외적인 가치를 성공이라고 믿고 쫓다 보니 내적인 균형이 허물어졌다. 인류의 삶을 떠받쳐 온 심원한 내면의 문제, 내면의 신비, 내면의 통과의례를 제대로 겪지 못하게 되었다. 삶을 풍부하게 하는 심원한 삶에서 멀어졌다. 깊은 인생은 없고 누구나 비슷한 복제의 삶이 주어졌다. 이러다가 평생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죽게 될지 모른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바로 이 내면적 가치, 그 가치를 찾아가는 삶의 길잡이와 이정표가 바로 고전이다. 내면의 가치를 잃었다고 느낀다면 바로 고전을 읽을 시간이다. 삶의 지표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바로 고전을 읽을 시간이다. 삶의 황홀을 맛본 지 오래 되었다면 내 영혼을 위해 바로 지금이 고전을 읽을 시간이다.

종종 우리는 질문한다. 우리는 왜 옛날의 이야기, 남의 나라의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가? 그것은 세계와 진정한 유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다. 진정한 글로벌리제이션은 단순히 어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적 문맥을 읽어 내는 것이다.

자기 것만 읽으면 도그마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읽으면 메시지를 얻게 된다. 여행이 멋진 이유는 보지 못한 풍광과 세속을 만나기 때문이다. 책은 여행이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문법을 많이 접할수록 삶은 풍부해진다.

그러면 고전이란 무엇인가? 고전은 오래된 책이다. 긴 세월 동안 퇴색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인류의 근육이며 신경체계다. 그러나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다. 고전은 '진실에 진실한 작가'들이 쓴 책이다. 진실에 진실하다는 뜻은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준다는 뜻이다.

고전은 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완전한 인간은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은 매일 엮어지고 자빠지고 깨진다. 몸은 조그만데 머리는 터무니없이 크다. 이 불완전한 균형이 사랑스럽지 않은가? 아슬아슬한 것, 인간이라고 느끼게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고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 가능한 행복을 찾게 만들어 준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책이다.

고전은 바로 불완전한 인간에게 작가가 진실한 언어의 창을 던지는 것이다. 깊은 상처를 입힌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랑의 창이다. 불완전한 인간을 찢어 그 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토마스 만은 이것을 '에로틱 아이러니'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고전은 나를 바꾸는 지독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삶에 기쁨을 쏟아주는 위대한 이야기다. 불행하다고 느낄 때, 두고두고 펼쳐보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행은 위로받을 것이다. 만일 인생이 다 시시하다고 느낄 때, 삶을 기쁨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책 한 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살아 봐야겠다고 느끼게 한다면 그 책이 바로 그대의 고전이다. 고전은 우리를 일으키는 지팡이다. **김재태**



● 구본형 소장

1954년생으로 서강대 역사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0년부터 20년간 한국IBM에서 경영혁신 기획 및 실무를 총괄했으며, IBM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영품질을 진단하고 조언하는 컨설턴트 활동을 했다. 2000년 3월, 1인 기업 '구본형변화경영연구소'를 설립해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변화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그는 매년 1권의 책을 출간하고 있으며, <사람에게서 구하라>, <더 보스>, <필살기>, <낮선 곳에서의 아침>,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등 17권의 저서가 있다.

September

매주 목요일 07:00~09:00

G2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기회

제1754회 9월 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중국을 공략하지 않고는 기업의 장기 성장을 논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왔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시장에서 1등을 못하면 세계 1등의 꿈도 접어야 한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근 30년의 부상이 눈부시다. 세계 150위에서 2위로 급등해 미국과 세계 질서를 양분하는 G2 국가가 되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등으로 등극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은 50년 장기플랜 하에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확대, 소득분배에 있다. 7대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수출·투자보다는 내수 확대를 통해 고도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2012년 중국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소비 중국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유효 수요를 쥐고 있는 나라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중국은 이제 생산대국이 아니라 소비대국이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에서 1등이 되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중국 경제 금융 분야 전문가이자 칼럼리스트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중국전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中 칭화대 경제관리학 석사 | 中 상하이 푸단대 관리학원 석박사 |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대우증권 리서치본부장, IB본부장 | 한화증권 리서치본부장 | 한화상해투자자문

자문위원 | 중국경제금융센터 초빙 연구위원 |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 고문 | 지식경제부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 경희대 중국경영학과 객원교수

<저서> 5년 후 중국,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 금융산업 지도,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이기는가

김수길 중앙일보 주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1977년 중앙일보 입사, 경제부장, 국제부장, 워싱턴 특파원, 경제 전문기자, 논설위원, Week&담담 부국장, 편집국장, 제작 담당 상무 겸 편집인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 부회장 | 더 뮤지컬 어워즈 공

동집행위원장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이사 | 중앙일보 부 발행인 겸 방송본부장 | 중앙일보 방송설립추진단 총괄본부장 |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 JTBC 제작총괄 부사장 | 중앙일보 부사장

<저서> 그래도 우리는 일본식으로 간다(가공), 금고가 비었습니다-DJ 정권 5년의 경제 실록(공)

경제민주화와 우리의 선택

제1755회 9월 1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가계부채, 양극화, 일자리, 남북분단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의 발전 틀을 잡고 밝은 미래를 제시해줄 리더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는 12월, 대한민국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최근 우리 사회에 '정의'와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한국어판은 지금까지 120만 권 넘게 나갔다. 유독 한국에서 출판계가 '정의' 마케팅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정치판이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선 승리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에는 분명 연관이 있다. 정의와 경제민주화가 과연 201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었던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의와 경제민주화는 쉬운 말 같지만 막상 누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샌델 교수의 강의와 저서는 "정의란 어느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다"로 요약할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 역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정치권의 논의를 보면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개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글을 쓰고 있는 중앙일보의 김수길 주필을 초빙하여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의 미래와 동반성장

제1756회 9월 2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벨뷰스위트룸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대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많은 지원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양극화의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다. 국민의 75.6%는 대기업의 성장이 정부의 대기업 중심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에 불과하다.

분명 재벌 대기업은 우리 사회에 마땅히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국가권력을 넘어 경제 권력화되어 더욱더 초법적인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동반성장은 오랜 시간 동안 진보적 학자와 진보 진영의 주장이었을 뿐, 국민에게는 낯선 단어였고, 일부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배척되는 용어였다. 그러나 18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가 전 국민의 관심과 모든 대선 주자들의 경제 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동반성장을 하지 않고는 양극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공동체로서 존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한 뒤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정운찬 이사장을 초빙하여 한국의 미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제23대 총장,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명예교수 | 한국금융학회 회장 | 한국경제학회 회장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대한민국 국무총리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 한국방송통신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



1937년 의사검정고시 합격 | 서울대병원 소아과 근무 | 英 런던대 소아과대학원 수료 | 日 동경 소아과대학 의학박사 |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 1973년 정식품 설립, 회장 | (재)해춘장학회 이사장

<상훈> 제1회 대한발명특허품 전시회 대법원장상, 제11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상, 제3차 국제대두학술대회 공로상 외

정재원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건강 장수 비결

제1757회 9월 2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정식품은 국내 두유 역사의 첫 장을 연 회사로 '베지밀'이 그 시초이다. 1973년 설립 이래 한국 및 세계의 두유산업을 선도해온 정식품은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 두유 부문 10년 연속 1위 골든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업계 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베지밀, 썬몬드, 그린비아, 우리안 등을 대표 브랜드로 하고 있으며, 85년 설립된 중앙연구소는 대두 관련 연구와 기능성 제품 개발에 있어 국제적으로도 연구 및 분석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베지밀'이 소아과 의사로 재직했던 창업자 정재원 명예회장이 소아 유당불내증의 치료식으로 개발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기업가라기보다 '콩연구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그는 '전 세계인들이 두유를 먹게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할 만큼 콩의 영양학적 우수성에 대한 신념이 남다르다. 실

제 96세의 그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독서를 거르지 않고, 경영을 살피는 등 건강한 장수 인생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그의 두유 사랑 이야기는 이미 2004년에도 화제가 되어 당시 90을 바라보는 정 명예회장을 모시고 들어본 바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그 후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건강한 삶을 지켜가고 있음에 우리 사회와 경영계에 큰 귀감이 되고 있는 정재원 명예회장을 초빙해 39년간 외길 경영을 걸어온 기업가 정신을 배워보는 한편, 현재 2세 경영자로서 정식품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정성수 회장을 함께 모시고 정식품의 미래 성장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민족의 뿌리, 고구려

제1758회 10월 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작가 김진명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베스트셀러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현실과 픽션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과감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대한민국 역사 소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학을 전공한 작가는 애초 문학이나 습작과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어려워진 가정 형편과 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불행을 겪은 형의 영향을 받아 소설가가 되었다. 이후 그는 체계적이고 정돈된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근 그는 데뷔 당시부터 숙원해온 작품 <고구려>를 집필 중이며, 현재 4권까지 출간되었다.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 '고구려'에 대한 세간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를 번역해 필독서로 읽게 하는 현실에 반해 지금까지 고구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늘날 요하 문명을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맞서 '우리 역사 고구려'를 바로 세우기 위한 김진명의 작업은 참으로 반갑고 귀한 일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뚜렷한 문제의식을 지닌 김진명 작가를 초빙하여 우리의 가슴 뛰는 역사, 고구려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진명 작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졸업 | 몽유도원도 반환운동 추진

<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천 년의 금서, 몽유도원, 황태자 비 납치사건, 1026, 하늘이여 땅이여, 최후의 경전, 카지노, 고구려 외

곽덕훈 EBS 사장



서울대 자원공학과 졸업 | 연세대 전자계산학 석사 | 고려대 전산학 박사 | 한국방송통신대 컴퓨터 과학과 교수 | 도산아카데미 유비쿼터스포럼 회장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교육정보기술표준화위원회 위원장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 스마트러닝포럼 의장 | 스마트엔젤스코리아운동협의회 공동의장 | 교육과학기술부 숭무미래인재포럼 위원

<상훈> 대통령 표창, 노동부 장관 표창, 제7회 윤동주평화상 교육부문 외
<저서> 컴퓨터과학 총론, 소프트웨어공학, 멀티미디어 시스템, 유비쿼터스의 이해 외

디지털 컨버전스와 교육환경의 변화

제1759회 10월 1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디지털 컨버전스는 한 가지 기기에서 다른 기기의 영역까지 그 기능을 확장하고, 또 한 가지 기기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최근에는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기기가 주는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

시장의 확산과 소비자의 니즈 변화와 맞물려 디지털 컨버전스는 미래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했고, 기존 산업적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육 분야는 디지털 컨버전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모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빅뱅과 웹2.0시대로 대변되는 환경 변화에 따라 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사람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스마트러닝이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이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술이라도 그 중심에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대중에게서 외면을 받고 말 것이다.

스마트러닝이라는 교육적 과제를 넘어서서 방송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EBS 곽덕훈 사장은 미래발전을 위한 가치로 Trust(신뢰), Pride(긍지), Fun(재미)을 제안하면서 EBS 방송을 활용한

사회 통합과 교육 멘토링의 전국적 확산을 꿈꾸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곽덕훈 사장을 초빙하여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이 새로운 시대 디지털 컨버전스를 어떻게 기업의 인재경영에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세계를 바꿀 10대 기술과 산업 바이오

제1760회 10월 1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올 초 이상엽 KAIST 교수가 의장으로 있는 세계경제포럼 산하 미래기술 글로벌 아젠다 카운슬은 '2012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한 바 있다. 10대 신기술은 현재 인류가 해결해야 할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매년 새롭게 선정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은 과학계와 산업계,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까운 미래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10대 기술에는 △정보기술 인포매틱스 △합성생물학과 대사공학 △녹색혁명 2.0, 물질설계 나노기술 △시스템생물학과 화학 생물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기술 △이산화탄소의 원료로써 활용 기술 △무선 파워 전송기술 △고에너지밀도 파워시스템 △개인 맞춤형 의학, 영양, 질환예방 기술 △신교육기술 등이 선정되었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의 가속화된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발견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카운슬이 찾아낸 기술 가운데 많은 것들이 지속가능하고, 굳건한 미래를 건설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상엽 KAIST 교수를 초빙하여 세계를 바꿀 10대 기술을 알아보고, 신기술과 산업 바이오가 인류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상엽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 美 노스웨스턴대 화학공학 석박사 |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LG화학 석좌교수 | KAIST 생물공정연구센터 소장, 생물정보 연구센터 소장, 바이오융합연구소 공동소장 | 호주 퀸즐랜드대 명예교수 | 싱가포르 BioProcessing Tech Institute 특별 자문위원 | 세계경제포럼 산하 미래기술 글로벌 아젠다 카운슬 의장 | 세계경제포럼 산하 생명공학 글로벌 아젠다 카운슬 초대 의장

<상훈> 머크 대사공학상, 마빈존슨상, 찰스툼상 외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행정고시 23회 합격 | 상공부 산업진흥과, 국제협력과, 통상정책과 |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국제기업담당관 | 미국 허드슨연구소 파견 근무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본부장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 근무 |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융합과학과 테크 플러스(Tech+) 패러다임

제1761회 10월 2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융합의 바람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고 있다. 사고의 변화를 위한 현대적 고전인문학 강연이 열리는 가 하면, 휴대폰이 인간과 하이테크의 만남을 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방을 통해 교육, 문화, 예술을 포괄하는 종합 작품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3D 하이테크와 예술의 만남인 영화 <아바타>가 천문학적인 관람객을 모으면서 이제 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최로 신개념 지식콘서트 '테크플러스포럼 2011'이 개최되기도 했다. 창조·융합·개방의 패러다임인 테크플러스에 관심을 갖는 7,500여 명이 참석해 국내에 불고 있는 융합과학의 바람을 짐작케 한 행사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6일, 김항식 총리 주재로 제1회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이며 인

간미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를 상대로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이 인문학 즉, 경영·사회·심리·철학·디자인·예술 등과 만나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을 초빙하여 그간 노력해온 산업기술 R&D에서 벗어나 국민소득 3~4만 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융합과학의 도전과 테크 플러스 패러다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749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복지사회와 기업의 역할

최근 복지문제로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겪고 지나가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다. 다만 그 안에서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과 고용이 국가의 부 결정

국민들은 모든 정책, 국가적인 과제를 대할 때 빨리 결론에 이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 다가올 도전, 국제적인 상황 등이 잘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욕구나 바람을 중심으로 주장이 전개된다.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는 일도 종종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짧은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궤도를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인간개발’이란 단어를 좋아한다. ‘인간’이 가장 광범위한 단어이며,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란 단어는 물리적 투입 느낌을 주고, ‘인재’라는 단어는 특정화된 집단의 사람처럼 느껴진다. 최근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Real Wealth of Nation>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한 칼럼이 실렸다. 이 책에는 몇몇 경제학자가 유엔의 후원으로 주요 20개국의 ‘국가의 진정한 부(Real Wealth of Nation)’를 측정한 결과가 담겨 있다. 국가경쟁력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12~13위다. 또 세계에서 2050클럽에 7번째로 가입한 나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척도일 뿐이다. GDP는 한 해 동안 그 나라가 창출해낸 부이기 때문에 일종의 플로우(Flow)의 개념이다.

그보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를 측정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항목이 인적 자본이다. 세계 최강의 부를 지닌 미국도 부의 75%를 인적 자본으로 평가했다. 영국은 85%가 인적 자본이고, 일본은 인적 자본이 100%에 가깝다. 우리나라도 거의 인적 자본에 의존하는 나라일 것이다.

인적 자본을 측정하는 세 가지 지표가 있다. 첫째, 국민 1인당 평균 학습 기간이다. 둘째, 임금의 총 레벨이다. 임금은 결국 생산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셋째, 퇴직 때까지 남아있는 근로 기간이다. 퇴직 시기가 빠른 한국은 이 요건에서 다소 불리할 것이다. 결국 교육과 고용이 나라의 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원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

복지도 마찬가지로. 복지도 결국 국가적인 부를 어느 정도 갖추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는 따로 떼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일부 언론이나 학계에서 경제, 사회, 복지를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해 상호배타적인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복지는 가장 상위개념이다. 복지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복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 10%가 채 안 될 정도이다.

복지는 두 가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과 행복(웹스터 영어사전)'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각각 신체적인 인간개발과 정신적인 인간개발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 결국 '복지'와 '인간개발'은 하나로 연결된다.

복지라고 하면 나라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복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스스로 삶을 개발하고 개척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최근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고,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육과 보육은 정부가 제공하기 전에 가족의 영역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의 사회 안전망이 강했다. 예를 들어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으면 아우가 조카들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졌다. 자식들은 늙은 부모에 대한 부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최근 이런 전통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새로운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발적인 사내 복지를 실행하는 기업의 역할과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실제 2011년 기업들이 직접 부담한 4대 보험료가 32조 원(전체 60조 원)이다.

정부와 민간의 조화와 선순환 관계가 복지의 핵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있다. 국가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사회보험을 제공하면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적 부조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회 구현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복지에 대한 국가, 기업, 가족, 개인의 역할과 책임은 당연히 '조화와 선순환'의 긍정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국가 발전의 동력도 상실될 것이다.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 외환위기를 겪은 후부터이다. 우리 사회에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 사이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복지 제공의 주체에 있어 국가 부문은 증가하는 반면 민간 부문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복지에 대한
국가, 기업, 가족, 개인의
역할과 책임은 당연히
'조화와 선순환'의
긍정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모든 능력을 복지에만 쏟을 수는 없다.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성숙하여 조화를 이루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과제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첫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이다. 1990년 5.1%였던 노인인구가 2010년 11%로 늘어났는데, 2030년이 되면 24.3%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00만 명의 노인 중 독거노인이 120만 명인 것도 심각한 문제다. 노인인구의 의료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의 35%를 노인인구가 사용했다. 2030년이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65%가 노인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

둘째, 소득 격차에 의한 빈곤층 증가이다. 빈곤층이 늘어나면 공적 부조의 부담도 늘어난다. 최근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비난이 있었다.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과거 보다 소득 파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50여 가지의 소득 자료가 전산으로 통보되다 보니 빈곤층의 소득이 자료에 잡혀서 수급자 선정 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0% 원칙을 적용하기 보다 가가호호별 사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셋째, 여성의 사회 활동에 따른 보육예산 증가이다. 현재 3~5세 아이들에게는 누리 과정이 의무교육인데, 0~2세 아이들에게 보육과 양육을 조화시키는 형태의 정책을 펼칠 경우 2015년에는 전체 보육 예산이 14~15조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늘어나면서 복지 수요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가족 중심의 사적 안전망이 사라지고, 가족 간 유대가 약화되는 것도 복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1~2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을 넘었다. 현재 120만 명인 독거노인들이 2025년에는 약 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노인 예비세대와 이혼율, 독신자 수 등 요즘 세태를 감안하면 예측이 가능하다.

독거노인의 경우, 복지의 시작은 안전 확인부터이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가족이 있으면 괜찮지만 혼자 있을 경우가 문제이다. 이때 안전 확인 서비스로부터 복지가 시작되는데, 120만 독거노인 중 20만 명밖에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야쿠르트 배달원, 우편집배원,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기업에서도 사회공헌활동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안부전화 드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복지 수요 증가의 원인을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복지문제의 해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지만 국가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가져주셔야 한다.

복지 수요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가경쟁력도 상실

복지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복지는 국가 전체의 운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다시 말해 적절한 수준에서 국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회 전체는 우울해지고 침체된다.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

고, 발전 동력마저 사라질 것이다.

국민 각자가 행복을 느끼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복지는 그 희망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최근 5가지 분야별 복지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 독거노인 대책, 결핵 대책, 정신질환 대책, 발달장애 대책, 치매관리 대책 등이다. 실제 집집마다 한 가지씩 고민이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집이 우울하다'고 답변한 가구가 80%나 되었다. 장성한 아들이 결혼을 못한 것도, 아내가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도, 부모가 치매로 고생하는 것도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 개인과 가구가 안고 있는 고민을 정부가 잘 알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

복지문제에 있어 전문가들은 스웨덴의 예를 많이 든다. 스웨덴이 복지국가의 이름을 내걸고 실천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전제는 완전 고용이다. 완전 고용이 허물어지면 북유럽 복지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실제 무너졌었다. 19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대대적인 수습에 들어갔고, 최근에도 스웨덴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혜택을 축소하는 복지개혁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복지를 막연하게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복지국가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은 기업에서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이 높아야 4대 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

건강보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5.8%인데, 기업과 본인이 2.9%씩 낸다. 이를 통해 우리는 2달러 50센트의 진찰료만 내고도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있을 만큼의 의료보험체제를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당뇨나 고혈압 등 성인병에 대한 '예방' 활동이다. 거의 모든 의료예산을 치료에 쓰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을 통한 복지에 있어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 정년 연장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늘어나는 일자리 중에 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많다. 사회서비스, 보육, 노인 케어 등이 새로운 고용의 기회로 창출된다.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이렇게 늘어나는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의 보수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좀 더 일할 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HDI**



제1752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공유가치 창출과 동반성장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일류라고 할 수 있는 경제 강국을 이루었다. 조금만 더 가면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 남은 길이 바로 동반성장이다.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경제 강국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중진국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동반성장이야말로 이 시대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요구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굴곡의 대한민국 반세기 경제사

최근까지 우리 경제는 굴곡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다. 70년대 1, 2차 오일쇼크와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80년대 올림픽을 계기로 다소 회복하다가 문민정부 직전에 자유화 바람으로 노동계의 억눌렸던 분노가 분출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회복기에 접어들었던 한국 경제는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다시 곤욕을 겪었고, 다행히 슬기롭게 잘 이겨냈다.

그러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 경제에 이어 유럽까지 영향이 미쳤고, 지금은 과연 유럽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선진국들의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과정에 있고, 금년도 어려운 상황이다. 과연 2012년 경제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하향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게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위기를 맞아 그때그때 적절한 경제정책을 제시했고, 슬기롭게 헤쳐 나왔다. 그리고 개발 초기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추구했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는 모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정부의 협조로 대기업 집단이 형성되면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 끝에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공할 수 있었다. 80년대에는 해외투자자와 국제화에 박차를 가했고, 90년대 외환위기를 맞아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일부 그룹들이 문을 닫았다. 이런 추세를 타고 신지배구조가 도입되었는데, 대기업들도 차입경영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문어발식 경영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는 것





이 신지배구조이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윤리경영이 도입되고, 정부는 한 발 빠지고 기업이 자율적 경영을 하는 자율경영의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시장의 환경 변화와 기업의 인식 변화

이러한 기업경영의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세계경제는 공통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산업 전반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WTO 시대 이후로 세계는 완전한 하나의 시장이 되었고, 누구나 뛰어들어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

정치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오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게 될 지도자들이 위기의 세계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특히 세계 도처에서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실업률, 주택시장 침체, 유가 불안정, 금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특히 G2를 중심으로 완력을 쓰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국제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물건을 값싸게 잘 만들고, 시장을 선점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점유율을 높이면 승자가 되는 것이 경제 원리였고, 경영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업들은 더 이상 과거의 경영방식으로는 세계시장의 요구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을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와 이로부터 오는 원가부담 해결, 환경경영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모색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등장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기업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타계하기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지식경영을 강조하고, 기술경영은 물론 첨단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새로운 생산 방식을 구현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동반성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인 시대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윤리경영이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인식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윤리경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합해져서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됐고,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기업은 가치 중심으로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고, 자율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윤리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익 추구를 넘어 사랑받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좋은 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인본적, 휴머니즘 사고가 기업의 마인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트렌드에 맞는 능동적 대응,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성장 방식, 변화에 맞춘 기업 문화로 진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뜻을 모으고 감정을 공유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무형적 동력으로 외부이익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말이 있다.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서 시장을 선점했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뭔가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면 상품의 이익 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사회를 의식하고, 인간성을 의식하고, 환경의 변화를 의식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은 원론적인 경제학을 잘 이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와 국가가 언제 또 양분화될지 모르고, 사회가 갈등의 깊은 골로 빠져들지 모르고, 기업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지 모를 일이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

그래서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세계경제의 악조건에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시민사

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동반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리더로서 잘 성장해왔다. 전 세계에서 손색이 없는 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대기업 하면 몇몇 기업만을 떠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1,852개에 이른다. 전 세계에 나가서 다양한 분야에서 1~2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 1,852개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동반성장 문화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대기업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넘어볼까 하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 대기업에는 협력사가 많은데, 협력사를 지원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많이 요구했다. 많은 이익을 냈으니 사회에 나누자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은 CSV(Create Shared Value), 즉 가치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회를 좀 더 건설하고 투명하고 밝고 희망차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제 돈만이 아니라 전인적 차원까지 발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도와주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중소기업 간에 공정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이 정신과 자체 경쟁력 향상, 지속적 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중소기업이 버려야 할 악행이 하나 있다.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 수준에 가면 고의적으로 회사를 분리해버린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공유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좋은 기업, 가치 있는 기업, 그런 문화를 공유하면서 사랑받는 기업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SNS가 발달하면서 각종 매체가 소식을 순식간에 전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기업의 행위가 삽시간에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고, 이것이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한다. 사회가 기업을 예리하게 감시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다.

그 도구가 SNS이고, 한국이 IT 강국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시민들이 각종 SNS를 통해 그 기업을 찾아낸다. 물론 악성루머 등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쁜 기능보다는 이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 소통하는 사회, 투명한 사회로 만들

어 가기 위해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순기능을 믿고 있다.

신성장 경영방식 - Smart Power

과거의 하드 파워 경영방식은 물질적인 파워였고, 21세기 들어서면서 소프트 파워가 등장했다. 기계적·물질적 힘도 중요하지만 지식경영, 인재,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기술을 공유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이 소프트 파워이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 파워(Smart Power)라는 개념이 나왔다. 하드 파워도 좋고 소프트 파워도 좋지만 거기에 경영가치와 문화, 동반성장의 개념을 더해 차원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이 진정한 스마트한 파워를 가진 기업이라는 것이다.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로 세계시장에서 1등이 됐다고 해서 2, 3, 4등 기업을 다 죽이는 기업은 바보 같은 파워를 가진 기업이다. 스마트 파워를 가진 기업은 1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 3, 4등에게 나름대로 합당한 역할을 줌으로써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다.

자본주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량생산체제를 중시하다가 기술과 인재, 공유, 네트워크를 중시하다가 지금은 가치, 문화,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남을 배려하는 기업의 시대로 넘어온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가 '나만 잘살면 돼'에서 '같이 잘 살자'를 거쳐 '남을 위해서 살자'는 'Altruistic Power'로 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동반성장을 이루면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에서 작지만 강한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해 선진국이라고 자랑할 만한 경제가 될 것이다. **김재민**





복합 문화예술 공간 ‘갤러리 G 아르체’ 오픈한 이종원 (주)리사이트 대표 “전 국민이 미술&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문화국가를 꿈꿉니다”



‘미술전시 및 관람은 인사동과 청담동으로 가야 한다’, ‘음악, 공연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순화공연장, 대학로 및 홍대 앞으로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반기를 든 곳이 있다. 강남역 신분당선 역사 내에 위치한 ‘갤러리 G 아르체(Arche)’가 그곳이다.

카페 겸 미술&문화예술 공간인 G 아르체에서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기 전 커피나 음료를 즐길 수 있고, 정기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강좌나 음악회가 열리고, 공연 전후 작가의 작품설명과 작가의 철학 소개 및 토크쇼도 진행된다. 특히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구매할 수도 있어 예술가들을 위한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 G 아르체는 사람들과 함께 보고 듣고 마시고 먹는 즐거움 및 아름다운 미술품과 특산품을 사고팔기도 하는 ‘One Step’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과 생활패턴에 맞는 각종 문화포럼, 이벤트 행사, 소규모 단체모임 등도 가능하다.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미술작가, 문화예술인, 학생, 취미단체, 영농단체 및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수익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생활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문화 광장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명 작가들의 전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7월에는 강두형, 김은경, 안승규, 이석보, 이완호, 이영진, 이인숙, 이종태 등 화단의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는 인기 작가 8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팔방미인전 II’가 열렸다.

One Step 생활문화 공간 G 아르체 탄생

누구나 들러 쉬어 가고 미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

G 아르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원 (주)리사이트 대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진 미술&문화예술 공간을 창조하겠다는 콘셉트로 G 아르체를 오픈했다. ‘전 국민의 문화예술 사랑과 아름다운 미술품 갖기 생활화’를 통해 선진문화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다. 비전문가인 그가 어떻게 문화예술 사업에 진출하게 됐을까?

“화가도 아니면서 어린 시절 화가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15년간 해외에 근무하면서 선진국들의 예술품을 사랑하는 문화에 감동을 받았어요. 은퇴 후 국민의 정서 함양과 미술 산업 선진화에 기여해보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실제 이 대표는 건영그룹 기획팀장을 거쳐 40대 때 10년 넘게 인도네시아의 코데코그룹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진국의 삶의 질을 보고 우리나라도 2만 불 시대 이후의 문화국가 건설과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질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미 ‘국내 최대 온라인 갤러리 겸 미술품 장터’를 만든 장본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한국미술협회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4만여 등록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그림 장터’를 만들었다. 3,000여 작가의 작품 5,000여 점을 전시했으니 온라인 갤러리로 손색이 없다.

리사이트는 이어 인터넷 쇼핑몰 업체와 제휴를 맺고, 화가의 인장과 사진, 프로필, 그림설명이 담긴 작품 보증서를 첨부함으로써 시장에서 작품의 신뢰를 확보했다. 지금은 우체국쇼핑몰의 미술품 장터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CJ오쇼핑, 현대패밀리쇼핑몰 등과 제휴하면서 50만 원 이하의 저가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를 열었고, 국내 최대의 인터넷 미술품 판매 회사로 성장했다.

“그동안 화가들이 일부 갤러리를 통해서만 그림을 판매할 수 있어 판로 개척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로가 열림에 따라 화가들이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집집마다 회사마다 그림이나 조각 한두 점은 전시되어 국민의 정서 함양과 예술에 대한 안목이 높아져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바란다는 그의 바람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갤러리 및 미술품 장터 노하우 살려 ‘한류 지하철 문화’ 조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 만들어 갈 것

최근 (주)리사이트는 국내외 최초의 디지털 익스프레스 지하철을 운영하는 (주)신분당선과 KT, YG엔터테인먼트와 함께 G 아르체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한류 지하철 문화’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류 드라마, 영화, K-Pop에 이어 한류의 미술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G 아르체 모델을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 국민이 선진형 미술&문화예술과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전문가로서 문화예술 분야를 바라보는 이 대표의 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가 창조되고 있음을 느낀다. **김재미**



세계적인 레저 테마파크 전문가가 전하는 한국관광의 미래 “가장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를 보여줄 데스티네이션을 만들어라”



“관광은 집객이다. 집객의 필수요소는 ‘즐거움(Fun)’이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 세계 각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편히 쉬고, 먹을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숙박과 식음 등 기본 시설이 필요하다. 그 시설 위에 만족하고 놀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쇼핑, 볼거리 등의 활동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감동이 없다면 사람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관광은 단순히 방문해 자연 자체를 둘러보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인위적인 재미와 감동을 일으켜 유인해야 한다. 미국은 한 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관광대국이다. 인위적으로 테마와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재미있는 시설(리조트, 숙박, 식음)을 만들어 즐거움(엔터테인먼트)을 제공하며, 감동과 체험을 제공해 다시 오고 싶도록 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프로그램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의 3박자가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만들어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디즈니와 유니버설, 라스베이거스 등도 미국의 문화와 역사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재생산해낸 결과물이다. 한국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풍부하며, 현재의 문화도 다양하고 흥미롭다. K-Pop과 드라마, 게임, 인터넷, 패션 등이 다양하게 발달한 역동적인 나라로 현재와 과거의 흥미로운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재미있게 재생산해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그릇에 잘 담아낸다면 세계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미국 커닝햄그룹(Cunningham Group)의 짐 사이델(Jim Scheidel) 회장이 지난 7월 말, 본원이 주최한 ‘제주 CEO 섬머포럼’ 특강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이다. 커닝햄그룹은 월트 디즈니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등 세계에서 창의적 디자인으로 가장 성공하고 유명한 테마파크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디자인과 설계를 주도한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이다. 커닝햄은 창의적 디자인과 설계 과정에서의 협력정신을 가장 중요시하며, 관련 업계를 주도해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디자인 및 설계를 하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짐 사이델 회장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를 이끄는 CEO로서 한국의 관광산업을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했다. ‘한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녔지만 그것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국의 문화를 알려줄 만한 데스티네이션이 없다는 것이다. 도심의 집중시설인 ‘어반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문화(스토리텔링), 레저(재미), 데스티네이션(장소)이란 삼박자가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원동력이지만 한국에는 고만고만한 시설들이 산재돼 집객 시너지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의 답변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거침없었다. 특히 한국의 관광산업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남겼다. 전 세계가 관광산업을 일으켜 국가의 수입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귀담아들을 만한 이야기이다.

관광산업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짐 사이델 회장으로부터 관광으로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는 국내 테마파크 디자이너 1호 니나 안 커닝햄그룹 부사장이 함께했다. 그 역시 테마파크와 건축리조트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비롯해 서울의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국내외 유명 테마파크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사진 · 오경근 원장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이 몇 번째 방문이신가요? 한국을 방문한 소감부터 말씀해주세요.

한국은 적어도 40회는 방문한 것 같습니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또 전국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방방곡곡을 다닌 경험이 있어서 아주 친밀하게 느껴져요. 저는 아마도 한국을 가장 잘 아는 미국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도로와 철도, 교통망 등이 우수하며, 호텔이나 공항도 아주 잘 되어 있죠. 그중에서도 인천공항은 세계의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우수합니다. 특히 미국의 오래된 공항들에 비하면 말이죠.

인천공항의 경우 시설은 아주 훌륭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국의 개성, 엔터테인먼트 등 영혼을 담은 한국만의 특성을 가미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좀 더 적극적이고 개성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의 플래카드 등의 차원이 아닌,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을 앞세운 한국의 영혼에 대한 홍보를 공항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닝햄그룹은 세계적인 테마파크와 리조트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이고, 그간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커닝햄은 창립한 지 45년 된 건축 설계회사입니다. 45년 전에 회사를 창업한 존 커닝햄 회장은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함께 일하고 있죠. 커닝햄은 지난 45년간 국제적인 관광지 설립으로 유명세를 떨쳐왔지만 단순 건축 설계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계일보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창의적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창의적 디자인으로 가장 성공하고 유명한 월트 디즈니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넷츠 베리 팜, 레고랜드 등의 테마파크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디자인과 설계를 저희가 주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의 엔터테인먼트, 호텔 등의 성공적인 일을 주도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성공하는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세계의 대표적인 시설들이죠. 커닝햄은 세계의 관광산업을 리드하는 창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프로젝트에는 커닝햄만의 철학이 반영돼 있을 것 같습니다.

커닝햄은 약 300명의 전 직원이 협력정신을 기반으로 한 협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합니다. 일반 건축 설계도 그렇지만 특히 레저 엔터테인먼트의 창의적 디자인과 설계 과정은 다양한 다른 분야와 많은 인원의 전문가가 함께 작업합니다. 수십 개의 각기 다른 특수 전문 분



● 짐사이델 회장

미국 오리건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짐 사이델 회장은 30년 이상 현장에서 뛰어난 통찰과 리더십으로 디자인을 현실로 바꾸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커닝햄그룹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짐 사이델 회장은 창업자 존 커닝햄의 정신에 따라 협동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노력으로 커닝햄그룹은 세계 테마파크 시장의 선두주자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아와의 협력과 동반은 필수적이면서도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것이 45년간 커닝햄그룹을 이끌어온 문화이자 앞으로 그룹을 키워갈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각자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파트너에서부터 일반 직원, 분야별 전문가의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가 함께 일하는 팀워크 협동정신에 아주 익숙하며, 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커닝햄의 철학은 지구와 환경, 인간보호의 친환경입니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원인과 주범은 바로 건축물과 시설입니다. 건축과 시설물을 만드는 설계회사로서 친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목적이죠. 특히 테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저희는 그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시설은 단순 건물을 벗어나 커다란 부지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복합시설의 친환경 디자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으로 커닝햄은 월트 디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등 세계적인 대형 테마파크와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등의 관광시설을 주도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개발 회사 등을 주축으로 친환경 협회인 'TESS(Themed Entertainment Sustainability Summit)'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9월 25일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테마파크를 통째로 빌려서 행사를 열고 있는데, 올해 4번째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세미나와 주제 토론, 정보 교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특히 올

해부터 중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완다그룹이 참여하게 되는데, 최근 미국의 AMC 극장 체인을 매입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한국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커닝햄이 레저 엔터테인먼트의 창의적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계기가 있습니까.

레저, 엔터테인먼트, 테마가 들어간 식음과 리조트, 쇼핑 공간은 관광 산업과 직결됩니다. 관광은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무한한 가치가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존재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문명의 이기 앞에 가족 간의 화목한 접촉과 유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행, 휴가, 휴식, 즐거움은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레저 엔터테인먼트의 디자인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관광객의 75%가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찾는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특별함이 어떤 것일까요.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 있는 25개의 테마파크 중심의 리조트에 총 1억 9천8백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중 1억 5천만 명이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만든 테마파크를 방문했어요. 이것을 커닝햄이 디자인, 설계했다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중 약 1억 5백만 명이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라는



김사이델 회장(가운데), 나나안 부사장(오른쪽)과 정만기 회장(왼쪽)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 문화에 기반을 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흥미로운 테마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에 볼거리, 영상, 음악, 첨단기술 등을 잘 배합해 즐겁고 재미있는 여러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냅니다. ”



사실이 중요합니다. 1억 5백만 아시아인 중 한국인의 비율은 극히 미미해요. 또한 일본인도 일본 내의 시설에 한정되어 있기에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절반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의 중산층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인 중산층 관광객에게 한국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세계적인 변화, 중국의 변화에서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2011년 미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10곳 중 나이아가라폭포와 스모키마운틴을 제외한 8곳이 도심 내에 인공적으로 개발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입니다. 주목할 것은 관광객들이 자연보다는 도심에 인위적으로 만든 곳으로 관광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나이아가라폭포라 하더라도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숙박, 쇼핑, 식음,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인위적 소일거리 시설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찾는다는 것이죠.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런 인위적 관광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아주 잘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에 기반을 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흥미로운 테마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에 볼거리, 영상, 음악, 첨단기술 등을 잘 배합해 즐겁고 재미있는 여러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는 수준 높고 영혼이 담겨있는 감동을 줍니다. 관람객들은 이것을 무척 즐거워하고요. 아주 고차원의 수준 높은 엔터테인먼트를 정말 재미있게 만들고 그 위에 편리하고 다양한 숙박, 식음, 쇼핑 시설을 함께 담은 것이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 총 1.9조 달러 이상의 관광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총 1,24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였으며, 총 1,140만 종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관광산업의 파급 효과는 여행, 식음, 식가공, 숙박, 서비스, 교통, 항공, 쇼핑, 유통, IT, 스포츠, 연예, 영화 등 수많은 파생산업의 동반 발전을 일으킵니다.

한국 또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을 이용한 테마 레저 관광산업의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회장님이 바라보시는 한국 관광산업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관광지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산과 강, 바다도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자연에 감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력적인 문화도 큰 장점이지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요소들을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진정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한국의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한국의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이 필요합니다. 데스티네이션이란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식음, 활동, 숙박, 쇼핑 등을 한꺼번에 담은 그릇입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제주도는 자연 그 자체는 아름답지만 관광객을 담을 수 있는 인위적인 시설이 부족합니다. 격리된 자연 그 자체는 수입을 만들지 못해요. 제주도는 식당, 작은 규모의 관람 시설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행 중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살 수 있는 쇼핑 시설이 거의 없어요. 일부 특급 호텔이 있지만 가족형 휴가, 레저 목적이 아니라서 다양한 레저 활동 거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제주도에는 국제 수준의 식음 시설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모든 계층이 골고루 놓고 즐기고, 활동,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관광 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밤을 즐길 수 있는 '나이트 라이프 엔터테인먼트'가 결여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는 관광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제주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실감 나게 느끼고 체험하며, 즐거운 테마환경으로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국제 수준의 식음과 숙박, 문화상품이나 일반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 하루하루를 즐겁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 등 각기 개성을 가진 테스트네이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에도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라는 대표적인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외국 문화를 접하려는 국내인들이 찾을 뿐, 외국 관광객들은 이런 유사 모방상품을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테스트네이션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관광산업이 세계적인 테마 레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도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서울 곳곳에 식당이나 시설이 산재되어 있지만 막상 외국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진정한 한국의 문화를 체험

할 수 있고, 쇼핑과 식당, 엔터테인먼트가 갖춰진 장소는 없습니다.

특히 도심의 집중 시설인 '어반 엔터테인먼트 센터(Urban Entertainment Center, UEC)'가 없어요. UEC란 명품 브랜드를 갖춘 특정 한국의 백화점 성격이 강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한국의 브랜드 상품, 약국이나 우체국, 은행, 관공서, 빵집 등 평범한 MD와 함께 극장이나 간단한 라이브 공연, 소소한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이 있고, 아이를 동반한 어머니가 산책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여러 종류의 깨끗하고 수준 있는 식음 시설, 평화롭고 재미있는 놀이 공간,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평화로운 휴식처 등을 갖춘 타운센터 형태의 쇼핑센터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 한류를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의 상품을 살 수 있는 문화 장소,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호텔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훌륭한 테스트네이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산책, 놀이, 쇼핑, 식음, 즐거움이 함께 있는 지역의 중심 시설, 그 지역의 사람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할 집중 시설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물론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특수성과 개성을 반영한 바로 이러한 타운 집중의 센터가 필요해요.

강남의 코엑스가 서울의 대표적인 UEC이자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채광이 전혀 없는 답답한 지하 공간에 소규모 가게와 식당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소음문제와 미로 같은 통로가 편안함과 즐거움보다는 불편함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KOREA
Culture



한국에는 극심한 더위와 추위의 외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 영혼과 애착이 느껴지는 장소, 즐거움과 재미, 감동이 흥겹게 이어지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러 시간을 보내고, 외부인들이 오면 자랑스럽게 보여 주고, 데리고 가서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곳. 또한 재미있는 공연을 보고, 영화를 보고, 친구와 만나 대화하고, 휴식을 취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느낄 수 있는, 진정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공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UEC입니다.

한강 주변도 사람을 위한 흥미로운 레저 엔터테인먼트 데스티네이션 관광지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홍수 대비를 위주로 한 최소한의 한강공원을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기엔 힘들죠. 사람이 물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아끼며, 언제나 쉽게 접근해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강과 사람이 격리되어 있으며, 사람이 강을 가까이에서 진정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강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한국의 강은 모두 친인간 위주의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2018 동계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어느 나라든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가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겪는데요. 한국이 그리고 강원도(평창)가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평창동계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올림픽에 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레저, 관광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찾아 즐길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으로 거듭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창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데스티네이션은 필수 시설입니다.

관광산업의 개발에 있어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문제점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과 보호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이 상호보완이자 이해관계의 절충점이 될까요.

사람들은 관광 개발이 곧 자연 훼손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즈니 유니버설에 놀러오는 관광객은 10억대 인구입니다. 만일 이 많은 인구가 자연만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오로지 하이킹을 목적으로 몰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야말로 사람에 의해서 자연이 훼손되겠지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자연 그 자체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액티비티가 결합된, 숙박과 식음이 없는 자연 그 자체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물리는 시설은 유도된 인공 시설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와이의 경우는 자연 훼손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인공 시설과 자연을 동시에 즐기는 시설로 많은 관광객을 유도해 성공적인 관광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한국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관광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40회 이상을 방문하게 된 한국과의 인연, 마치 제2의 고향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2류가 아닌 국제 수준의 월드클래스 관광지로 한국의 방방곡곡이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이것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보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그 일에 저와 저희 회사가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김재민**



- 1 개회사 하고 있는 정만기 회장
- 2 인사말 하고 있는 윤계섭 회장
- 3 2012 제주 CEO 섬머포럼 기념 촬영
- 4 2012 제주 CEO 섬머포럼 세미나장 전경
- 5, 6 7월 29일 포럼 참석을 위해 호텔로 들어서고 있는 참가자들
- 7 7월 29일 환영만찬에서 건배
- 8 환영만찬에서 인사





5



6



7



8

기획특집

2012 제주 CEO 섬머포럼 지상 중계

세상을 움직이는 발견, 융합의 창으로 다시 보다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3박 4일간 성료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제주 CEO 섬머포럼'이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25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12 제주 CEO 섬머포럼은 37년간 인간중심의 조직 문화를 목표로 경영자, 공무원, 시민을 교육해 온 인간개발연구원(회장 장만기)과 25년간 경제금융 대표 기업들을 이끌어온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회장 윤계섭)이 공동 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미래경쟁을 향한 새출발을 다짐하고, 창의와 혁신, 융합을 통한 창조적 영감과 열정을 얻기 위해 '세상을 움직이는 발견, 융합의 창으로 다시 보다'를 주제로 정하고, 경영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 세상에 담을 키워드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에는 조순 전 경제부총리,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강성욱 GE코리아 총괄 사장, 윤석철 한양대 석좌교수, 문용린 서울대 교수, 조태권 광주요 회장,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 짐 샤이텔 美 커닝햄그룹 회장, 박항기 메타브랜딩 대표 등이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강연과, 경영의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특강에 나섰습니다. 강창희 미래에셋 부회장, 김오곤 한의사, 최규성 대중문화평론가 등은 건강·재테크·문화의 창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박대성 화백과 한승원 소설가는 예술과 문학에서의 리더십을 이야기했고,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과 염재호 고려대 교수는 융합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토론의 장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료한 '2012 제주 CEO 섬머포럼'의 주요 내용을 기획특집으로 지상 중계합니다. **▶▶▶**

글·정용달 팀장 / 사진·인간개발연구원



9



10



11



14



15



16



17

9, 10, 11, 12, 13, 14 만찬장에서
즐거워하는 참가자들
15, 16, 17 참가자와 친교한마당
18, 19, 20 만찬의 마무리는 다함께
21, 22 섬머포럼 친선골프대회 시상식
23, 24, 25, 26 섬머포럼 친선골프대회
27, 28, 29, 30, 31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23



24



25



26



조순 前 경제부총리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大試鍊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할 이야기는 한마디로 '시대를 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화하지 않는 시대는 없다. 변화가 시대의 핵심이다. 그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시대는 한마디로 일대 시련을 겪고 있다. 이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과거의 패턴이나 패러다임과는 달라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2007년부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유럽의 재정 위기까지 이어지는 시대의 변화상을 봐왔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가 수습되면 경제회복이라는 새싹이 돌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났는데도 믿음만한 새싹은 돌아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점차 고착화, 고질화, 만성화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시련의 양상을 보면 경제의 불균형, 불안정, 불공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나라의 경제가 불균형 속에 있다.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성장 발전할 수 없다. 둘째, 불안정이다. 물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금융도 국제 관계도 국제 원자재가격도 불안정하다. 셋째, 불공평하다. 요즘 '정의'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는 각자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로 규명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통상적인 관념에서 공평한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기능 상실에 있다. 정치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또 하나 우리 시대 변화의 특징은 사회의 내부 분열이다. 이렇듯 정치, 경제, 사회가 정상이 아닌 세상이다.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 신자유주의 사상 때문이다. 미국에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으로 시장을 끝까지 밀고 가면 모든 문제가 이상적으로 풀린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둘째, 글로벌화 때문이다. 글로벌화는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 작은 정부 등을 기본으로 하는 글로벌화로는 세계가 지탱할 수 없다. 이 4가지가 합쳐지면 결국 나라가 명들게 된다. 셋째, 금융의 자유화 때문이다. 금융 개방화가 금융에 거품을 만들고,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미국 경제를 망치고 세계경제를 병들게 한 원인이 되었다.

이제는 세계의 모든 기업이 자기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모방하는 시대는 지났다. 선진국, 선진화가 유행했지만 이제는 본받을 만한 선진국이 없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없는 시대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선진국이다. 물론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도 한국만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과거 냉전 시대의 사고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도 없다. 그런 관점을 기초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통일의 기미가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철저히 지키고 존중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깃들고, 미국과 중국이 덜 싸우고, 동북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내 갈 길이 어디인지 알고, 굳건한 의지로 추진하는 자립적인 정신이 필요하다. 기업은 사람 중심의 기업, 고용 중심의 기업이 돼야 한다. 이제 한국의 고도성장 시대는 끝났다. 나라가 균형 있게 제 모양을 갖추고,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고, 내부 분열이 없는 사회로 가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포부를 가져야 할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김재민**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

격동의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세계 경제위기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지노 자본주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제금융시장이 통합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투기적 자본 활동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는 용어이다. 2007년 기준으로 세계무역거래가 17조 달러였는데, 외환 거래가 803조 달러였다. 이런 카지노판이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카지노 자본주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내용은 인구가 항상 증가해왔기 때문에 세계라는 카지노판에 항상 돈을 잃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능했는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은 지금 스스로 재기 불능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유럽 위기는 절대 안 끝난다. 유로화가 붕괴하거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이 탄생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우리 한국 으로서는 어쩌면 유사 이래 처음으로 기회를 얻고 있다.

자본주의의 반성에 대한 얘기가 많다. 시장질서, 지금까지 규제 없는 자율시장경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구 중심의 세계경제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고 G20이 등장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졌을 때는 석유와 차입만 가능하면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지금 유럽재정은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저축과 투자가 사라지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 추구 하던 경제학은 이제 전혀 의미가 없다.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미국을 기초로 일어난 경제학이었고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위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지금이다. 위기 때는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수비를 하고, 한 번 찬스가 오면 공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수기반 확충, 경상수지 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은 경제지표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환율이

변동될 때는 정부가 완화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은 거시 건전성에 의해서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감세정책은 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더 받자는 이야기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91개 회원국의 경기부양책을 분석한 결과 감세가 최고였다고 한다. 이렇게 위기에 대응한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세계 12위의 수출국에서 7위의 수출대국으로 올라섰다. 미국 브롬버그통신, IMF 한국과장, 골드만삭스 대표 등 모두가 한국의 경제 정책을 극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지낸 나라이다.

금융도 세계화도 미국에서 G20으로, 규제화에서 재규제로, 직접금융에서 은행 중심의 시스템으로 가야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소매금융이 좋고 수입성은 도매금융이 좋다. 그래서 두 개를 함께하는 모델이 나왔다.

이제는 정부가 중심주주로 있는 것이 좋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고 기업 공개를 해서 정부가 대주주로 남는 것으로 하는 새 모델이 등장했다. 한국금융은 자산구조가 많이 바뀌어야 하고, 이자와 비이자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한국에서 1위인 KDB는 세계에서 71위이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희생시켰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산업과 복지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제조업이 없는 서비스업이 안 되는 것이다. 미국도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다. 양극화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히든챔피언이 되기 위해 KDB는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기 위한 기업들에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다. **김재현**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창의적인 인재,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금 시대는 창의성의 시대다. 모든 경쟁력의 원천은 창의성에서 나온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새롭게 혁신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이 시기의 화두로 퍼져있다.

창의성의 일반적인 정의는 문제 상황에 맞는 새롭고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기존의 것을 개선하거나, 전혀 새로운 것을 상상하거나, 기존의 것을 새롭게 연결해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아주 창의적이지만 유용한 가치 창출에 공헌하지 못하는 창의성도 있다. 또 독창적이어야 하고 문제 해결에 기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이라고 하면 과학과 예술에서의 창의성만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들 수 있는데, 사회를 바꾸는 것은 인문사회학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창의성이야말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다.

창의성은 사회문화체제 속에 있다. 개인 속에 있다는 말을 특성론이라고 하고, 문화 속에 있다는 말을 체제론이라고 한다. 창의성이란 주어진 사회 문화적 체제와 상호작용 속에서 발휘되는 한 개인 또는 집단의 능력이다. 창의성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회문화체제에 달려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가드너 하버드대 교수는 한 개인이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는 한 개인의 특성(Individuality), 그 산출물의 전문 분야(Domain),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역동 구조(Field) 등 'IDF 모형'이 갖추어지며,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주장하였다. 의사가 되려면 의사의 소질이 있어야 하고, 의학 분야를 공부해야 하고, 병원에서 일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문제는 창의적인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을 발견해서 제대로 훈련시키고, 훈련된 것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소셜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이것은 국가의 문제도 되고, 한 기업의 문제도 된다.

가드너 교수의 저서 중 <열정과 기질(Creating Minds)>이라는 책은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피카소, 스트라빈스키, 엘리엇, 그레이엄, 간디 등 7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루었는지 교육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들의 삶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발견하였다. 첫째, 강점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그 분야에서 절정경험을 해야 한다. 셋째, 최전선에 위치할 만큼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나야 한다. 넷째, 몰입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간 몰입하는 과정에서 숙성되고 발효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강점을 파악하고, 조직 구성원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절정경험을 하게 해주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최전선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빠져들게 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몇 사람만 뽑아서 창의성 인재로 길러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하지는 엘리트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교육을 해야 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소수를 선별해 창의성을 집중적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

개인을 창의적으로 만들기보다 가정, 학교, 기업의 조직 구조를 창의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창의성은 개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의 친화적 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창의 친화적 환경이란 조직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줄서기와 같은 인간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창의 비친화적 환경이 많다. 개인의 창의성보다는 집단 창의성이 더 위대한 성취를 낳으므로 개인의 단독적 창의 활동 보다는 집단적 창의 활동과 협업체제를 강조하는 창의성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KHDI**

김오곤 화성행궁명인한의원 원장

노래하는 한의사 김오곤의 행복한 자기 건강법



고스톱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쓰리고를 맞지 않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이다. 3고(고혈압, 고혈당, 고지혈)를 맞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40~50대가 지나면 3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고는 예방과 조절이 중요하다.

먼저 고혈압이다. 우리 몸속의 적당한 압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혈관이 좁아졌을 경우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는다. 그러나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거나 잘못 복용하면 위장, 간, 신장이 안 좋아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가능하면 운동과 식생활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병원에서는 약을 안 먹으면 잘못된다고 겁을 주는데, 혈압약을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하기보다는 충분한 운동과 자연의 섭생에 맞춰서 치료하고 혈압약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배초향(곽향)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끓여서 6개월 정도 복용하면 놀라운 정도로 혈압이 떨어진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 중 또 하나가 수박이다. 특히 수박껍질에는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들어있다. 수박껍질을 말려서 차를 끓여 먹으면 효과가 좋다.

고혈당이 문제다. 탄수화물은 장에서 소화 작용을 통해 포도당으로 분해 흡수되어 혈당을 높인다. 이렇게 올라간 혈당은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 호르몬에 의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췌장 입구가 혈어버리게 된다. 인슐린이 천천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소류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 특히 오이고추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청양고추는 위장에 자극이 되므로 적게 먹고, 오이고추를 하루 5~10개 먹어주는 것이 좋다. 고지혈도 위험하다. 우리 혈관 속에 기름기, 찌꺼기가 많은 것이 고지

혈이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진다. 고지혈 환자의 특징은 손발이 저리고 몸에 힘이 없다. 그리고 염증이 많이 발생한다. 고지혈을 막고 피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소식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항상 소식하라는 말은 아니다. 아침은 일꾼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모델처럼 먹어야 한다. 아침을 잘 먹어야 점심 저녁에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녁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소식을 해야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는 표고버섯이 좋다. 표고버섯을 음식에 말려 갈아서 식사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먹으면 고지혈에 도움이 된다. 우리 몸속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죽는데, 이를 네 글자로 하면 '동맥경화'이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돈이 통하지 않으면 죽는데, 이것을 '돈맥경화'라고 한다. 사람의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인맥경화'이다. 이 세 가지를 '삼경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통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잘 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조기 한 마리를 먹는 것이다. 먹는 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누웠다가 일찍 일어나는 조와조기(早臥早起)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37년간 침을 놓고 20년간 한의원을 경영했고, 누구보다도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 중 하나이다. 내 좌우명은 한결같이 100세까지 생산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100세에 침을 놓기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에너지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조와조기(早臥早起)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 새벽 3~5시에 일어나야 한다. 잠은 5~6시간 자면 충분하다. 잠은 잘수록 늘고,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늘기 마련이다. 잠 역시 훈련에 의해서 줄일 수 있다. 이렇듯 행복한 자기 건강법으로 100세까지 생산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김오곤**

강창희 미래에셋 부회장

인생 100세 시대의 후반 인생 설계와 자산관리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는 현역 시절보다도 퇴직 후 30~40년, 길게는 50년 동안의 후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웃 나라 일본은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 중 11%가 75세 이상의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이다.

우리나라도 20년 후면 일본과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이다. 후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 리스크 즉, 장수 리스크,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 자산구조 리스크, 인플레 리스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

첫째, 장수 리스크이다. <싱글의 시대>,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등은 현재 일본에서 70만 부 이상 팔리고 있는 책 제목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 7년을 오래 산다. 3~4살의 연상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10년 이상 더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테크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남성들은 혼자 살게 될 아내를 배려해 상속, 연금, 보험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희소 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대형 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35년 1~2인 가구 비율이 전체 68%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부부만 남거나 사별하고 혼자가 되면 도심의 18~20평 아파트에 사는데, 그 주변으로 병원, 쇼핑,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인기라고 한다.

둘째, 건강 리스크이다. 나이가 들면서 수입은 없고 건강은 악화된다. 그래서 반드시 암과 같은 특수질병보험에 가입해서 준비해야 한다. 60세에 퇴직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 후 인생은 20년이다. 퇴직 후 식사와 잠을 제외한 하루 여유시간을 11시간이라고 보면 20년 동안 8만 시간이 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청소부, 지하철 택배, 경비 등이 재취업의 좋은 예이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현역의 경력을 토대로

보람있게 일할 수도 있고 재능기부도 가능하다. 수입도 없고, 품도 없고, 취미에 맞는 일은 없다. 후반 인생은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평생 현역의 삶으로 살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셋째, 자녀 리스크이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의 60%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이유의 60%는 자녀 교육비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부부가 자녀교육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등은 모두 자녀 스스로 해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두 부모의 몫이다.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다.

넷째, 자산구조 리스크이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계당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의 비율이 훨씬 높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 출산율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한 곳에 재산을 집중시키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주택은 이제 재테크의 수단이 아닌 거주 수단이다.

다섯째, 인플레 리스크이다. 연 3%의 인플레가 25년간 계속되면 100만 원이 약 48만 원이 된다. 금융자산운용은 투자 상품 중심으로 해야 한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운용회사의 장기운용 능력과 단서조항, 적합성, 세금, 수수료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자산 운용도 이제는 훌륭한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건강의 주치의가 아닌 나의 노후를 대비한 자산운용의 주치의를 만드는 것이다.

인생에는 3번의 정년이 찾아온다. 바로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의 정년이다. 평균 60세에 고용의 정년은 누구나 맞이하지만, 일의 정년과 인생의 정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여 행복한 100세 인생이 되길 기원한다. **미래에셋**

최규성 대중문화평론가

한국 걸그룹 계보학 -저고리시스터부터 소녀시대까지



최근 한국 가요계는 걸그룹이 대세다. 그렇다면 한국 걸그룹의 조상이 누구인지, 원더걸스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최초의 걸그룹이 맞는지, 9인조 걸그룹은 소녀시대로 대변되는 것이 맞는지 한국의 걸그룹 계보학에 대해 살펴보겠다.

1930년대 우리나라에 오케레코드라는 레이블이 있었다. 여기에 소속된 여가수들과 소속된 가수들이 조선악극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1939년에 일본에서 활동한 저고리시스터에 대한 기사가 1945년 동아일보에 소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걸그룹이라고 하기에 는 음반이 없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반을 낸 공식 걸그룹은 저고리시스터의 멤버였던 이 난영의 딸들인 김시스터즈이다. 1959년 미국에 진출해 '찰리브라운'이라는 노래가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차트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두 번째로 미국에 진출한 김치캣, 9인조 걸그룹으로 스윙재즈를 했던 블루리본, 같은 이름으로 여럿이 활동한 이시스터즈 등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미군 부대로 인해서 서구의 다양한 대중음악 장르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비롯한 트로트에 록, 포크, 팝 등 여러 음악 장르들이 유입되면서 한국 음악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왔다. 이 시대 대표적으로 활동한 걸그룹이 은방울자매, 한강엔젤 등이다.

1970년대에는 하나의 트렌드가 생겨났다. 지금도 시스터즈, 자매라고 하면 흔히 쌍둥이를 연상한다. 60년대에 체리시스터즈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70년대에는 쌍둥이 자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릴리시스터즈라는 걸그룹이 있었는데, 멤버 중 한 명이 가수 은지원의 엄마다. 바니걸스는 당시 외래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토끼자매라고도 불렸다. 그 외에도 유리시스터즈, 두나시스터즈, 숙자매, 현경과 영애 등 많은 걸그룹이 있었다. 당시 섹시그룹의 대표 주자는 인순이가 18살에 데뷔한 희자매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의 특징이라면 국보자매부터 가수가 되기 위해 굉장히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전과 달라진 추세였다. 70년대에 비해서 볼거리는 많아졌으나 걸그룹은 많지 않았던 걸그룹 침체기였다. 그나마 대표적인 그룹이 국보자매, 서울시스터즈 등이었다.

1990년대는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가 크게 성장한 시기이다. SOS라는 걸그룹이 93년에 데뷔했는데, 모델 출신들로만 구성된 그룹이었다. 그 이후 SES, 핑클 등 정말 많은 걸그룹이 등장했다. 특히 97년에 데뷔한 베이비복스는 한류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SES, 핑클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동네 구멍가게 같던 국내 음악산업을 이들의 음반이 100만 장 이상 팔리면서 키우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국 음악계에서 걸그룹이 인기 최정상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항상 보이그룹에 가려서 2인자 정도로만 여겨졌다. 그런데 2007년 데뷔한 원더걸스를 계기로 지금은 가요차트 1~10위까지의 순위 중 걸그룹이 4~5팀 정도로 절반을 차지한다. 지금은 한국 음악의 완벽한 맹주로 군림하고 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아이돌그룹에 열광하는 이유는 자국의 걸그룹이나 아이돌보다 춤도 잘 추고, 외모도, 퍼포먼스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꾸준히 연습시켜서 데뷔시킨 결과이고, 이것이 K-POP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다.

K-POP이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음악관계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오래갈 것이고, 같은 것을 반복해서 재탕한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걸그룹들을 보면 가창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세민**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한식 세계화 20년 '조태권의 문화 보국'



부친께서 한국 전통 도자기의 재현을 위해 1963년 이전에서 광주요를 창립하셨고, 50년이 지나 이제는 전통 도자기의 메카가 되었다. 1988년 부친께서 작고하신 후 그 뒤를 이어 광주요를 이끌어왔다. 이후 문화 생산자로서 세계를 주시하다가 단순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문화가 산업이 되고 곧 국력이 된다'는 것이다.

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되며, 산업의 원천이 되는 장소는 바로 식당이다. 식당에는 그 나라의 모든 문화적인 요소가 총체적으로 모여 있다. 21세기에서 물질적 고도성장은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문화가 바로 성장의 키워드가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문화 보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문화에 집중해야 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공통점은 도자기가 유명하다는 점과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 진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흡수하고 모방해 결국에는 자국화한 나라들이다. 그들의 음식 역시 세계적이다. 일례로 스페인의 한 식당은 한 끼 식사가 500불이나 하지만 1년 후 예약도 쉽지 않다. 이 식당 하나가 스페인의 브랜드를 대표한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5세기와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던 16세기경 고추, 옥수수 외에 동양의 후추까지 이들은 새로운 식재료를 받아들였고, 18세기 말에 나온 설탕은 신분의 척도가 되기도 했다.

이런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상품화하면서 경제와 문화의 밸런스를 높여갈 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큰 기적을 이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선진화가 미비하다. 국내의 고급문화는 아직도 타국에서 차용해 쓰고 있고, 우리의 문화는 서민문화로 전락했다.

가치란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정할 때 발생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식은 그저 끼니를 채우는 수단이지만 외국에서의 식사는 하나의 문화행위로 승화했다. 식당이란 그 나라를 체험하는 체험관이자 전시관이 될 수 있다. 가장 고급스러운 식문화가 대중화되어 사회 전

반에 확산되면 문화 수준도 함께 상승한다.

신분상승 욕구를 가진 사람은 보다 고급문화를 즐기려고 하고, 점점 발달하는 식문화를 국민 수준과 기호, 취향에 맞게 만들어 간다. 불고기와 갈비 등을 언급하며 한식의 세계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한식이 세계화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고급문화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자는 모든 예의 시초는 음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주거형태나 복식문화는 바꾸기 쉽지 않지만 음식은 만국공통어이다. 21세기는 문화 전쟁의 시대이고 의식주 중 특히 식문화는 문화의 기본이다. 식문화의 가치 증대는 곧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진다.

의식주 문화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적인 역량을 엿볼 수 있다. 사치스러운 문화가 있다고 이를 비판할 수만은 없다. 영국의 예를 들면 사치스러운 영국 문화를 접한 이들은 영국 문화 자체를 고급스럽다고 느낀다. 비록 보편문화는 그 고급문화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영국 문화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다. 국익을 위한 사치는 필요한 것이다. 타국은 이를 허용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문화에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되새겨야 한다.

홍콩의 경우 사치품에 면세 혜택을 줌으로써 상류층의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중국의 오랜 역사를 재해석해 숙박시설과 식당을 만들어 냈고, 이는 세계의 VVIP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다.

고급문화를 인정받은 나라들은 높은 브랜드파워를 지니며, 타국으로부터 존중받는다. 아직도 규모의 경제에 익숙해서 42만 개의 식당이 가지는 경제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 외식산업이 10%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성장 안에 한식의 자리는 없다. 이제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때다. 식량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다고 괴테는 말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되새기며 문화 보국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KNDI**

강성욱 GE코리아 총괄 사장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전략



130년 역사의 GE는 질풍노도와 같이 UP & DOWN이 많았던 시대를 생존해왔던 미국에서 출발한 유일한 다국적기업이다. 부침의 역사를 거치며 끝까지 생존하는 기업이 있고, 한때는 잘 나갔지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GE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와 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많은 경영자와 기업의 공통된 고민은 경제적, 양적 성장의 정체라고 할 수 있다. 유럽발,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성장'이라고 하면 현상유지 또는 마이너스를 줄여보는 정도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GE는 금년도 성장목표치를 12%로 잡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기대수준이 20%를 넘는 곳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금년도 성장률을 24%로 잡고 있다.

GE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21세기형 리더 확보 및 양성이다. 21세기 리더십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예전에는 기준이 되어주는 것을 따라 교과서적으로 진행하면 많은 부분이 맞아 들어가서 Case-Study가 생기고, 그런 Case-Study를 경영자가 공부해나갈 수 있었지만 21세기 리더십은 비정형성의 세계에서 빨리 위험을 분석하고 기회를 파악해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답은 없다. 현재 GE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21세기 리더십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잭 웰치 회장 때 가지고 있던 리더십 프로파일과 현재 GE의 리더십 프로파일은 굉장히 다르다. 6시그마, 블랙벨트 등 과거에 많은 내용들을 접했고 가치는 분명히 높게 존재하지만 시대적 관점이 세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프로파일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어떤 리더십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둘째, 탁월한 기술 개발 및 확보이다. GE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사라고 내부적으로 정의를 내린다. GE의 혁신은 경쟁적인 시대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130년이 지난 후에도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GE의 혁신은 R&D를 통한 기술의 혁신과 기업 인수합병 및 판매를 통한 신사업개발에 과감히 투자하는 혁신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글로벌 성장 시장 집중 및 확대이다. GE는 전 세계를 3개 군으로 나눈다. Resource Rich-자원이 풍부한 나라, People Rich-인재가 풍부한 나라, Developed Rich(Technology rich)-기술 등 능력이 많은 나라 등이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한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본 에너지, 헬스 케어 시장 등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GE의 경영진은 경영자로서 첫 번째 주안점을 인재개발에 두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인재를 통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인재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내려오는 철학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KAERI**



윤석철 한양대 석좌교수

기회인식과 관계창조



1960년, '보릿고개' 시절 제1호 비료공장이 충주에 건설되면서 충주 거리에 외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가족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당시 충주여고 3학년생 유순택 양은 이때를 외국인들로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다.

기회인식은 가치관의 보유를 전제로 한다. 유순택 양은 영어 공부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인식이 가능했다. 당시는 남녀학생의 연애만으로도 정학을 당하던 시절이었다. 승낙 얻은 유 양은 충주고교 학생회장이던 반기문을 방문하여 남녀 영어클럽을 만들었다. 원어민 영어를 공부한 반기문은 1962년 미 대사관 주최 영어웅변대회에서 1등을 하고, 부상으로 미국여행 기회를 수여받았다. 가치관, 기회인식, 관계창조로 이어지는 노력의 결합은 서울이 아닌 충주 출신 UN 사무총장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모두가 굶던 60~70년대 시절, '보릿고개를 타도하자'는 구호에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법씨를 개발하자'로 발전했다. 1974년 'IR667' 일명 통일벼 프로젝트는 그렇게 성공하였다. 5년이 지나고 1979년 쌀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가는 감격적인 시대가 시작됐다.

당시 쌀밥에 비해 열등재 위치에 있던 라면업계 2위 회사가 위기 속에서 기회인식을 했다. '라면이 더 좋아서 라면 먹는 시대를 창조하자'고 하면서 효소분해, 진공건조 공법을 도입했다. 결국, 1985년 라면업계 1위로 등극해 마켓쉐어 70%를 점유하였다. 기회인식에 실패한 당시 1위 회사는 13%의 마켓쉐어를 차지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1970년대 초, 조선사업 진출을 위해 영국 바클레이은행에 찾아가 한국이 15세기 말에 이미 철갑선을 건조한 역사가 있다며, 당시 500원권 지폐를 보여줬다. 그리고 그리스 리바노스사와 접촉해 25.9만 톤급 유조선 2척을 3,095만 달러에 수주했다. 1972년 조선소 기공과 건조를 시작한 현대는 1974년 선박을 인도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선박 건조 능력 세계 1위가 되었다.

주고받음의 관계창조로 좋은 사례가 있다. 여성 참정권론자 에멀린 팽크허스트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정치운동으로 1908~1914년 사이 13번이나 투옥됐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1차 대전이 일어나자 '전쟁에 나간 남성들을 돕기 위해 군수공장에 가서 일을 해주자'는 운동을 전개했고, 영국 여성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전쟁에서 승리 후, 여성들의 군수산업 노동의 공을 인정한 영국 정부는 1918년 3월 여성투표권을 인정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주고받음'으로 좋은 결과를 낸 것이다.

자연계의 관계창조를 보면 자기존재의 안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보인다. 자연계의 삼라만상은 92개(동종 혹은 이종) 원소들 사이 '관계창조'의 결과이고, 원소들은 전자(electron)의 '주고받음'에 의해 안정도(stability)를 높이는 관계창조를 한다.

예를 들어 나트륨과 불소가 전자 하나의 '주고받음'에 의해 '불화나트륨'이 된다. 곤충과 현화식물을 보면 꽃은 꿀이 필요 없지만, 곤충에게 먹이로 주고 곤충으로부터 가루받이 서비스를 받는다. 주고받음 관계창조에 성공한 곤충과 꽃 피는 식물은 지구 상 번성에 가장 성공한 종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대목이다.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을 사회화에서는 사회적 능력(social skills)이라 부른다. 국제교육협의회(IEA)는 사회적 관계창조 능력 측정 모델을 개발해 OECD 36개국의 중학교 2학년생 14만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이 조사에서 36개국 중 35위를 차지했다. IT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지만 이면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능력 결핍은 내면적 고독을 자처하고 있어, OECD 기준 자살률과 이혼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사회적 능력 향상은 한국인이 해결해야 할 당면 최대 과제이다. **김재현**

박항기 메타브랜딩 대표

소셜 네트워크 시대, 기업의 브랜드 대응 전략은?



‘소셜’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브랜딩 전략을 세우고 경영자들도 소셜 브랜딩 시대에 맞는 경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과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던 기업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다. 노키아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지만 이젠 아니다. 코닥은 100년 동안 세계에서 브랜드 관리를 잘하는 회사로 꼽혔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소니도 삼성전자에 밀려 망하기 직전이다.

이제 기업은 브랜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사슬(Value Chain)’ 싸움을 해야 한다. 브랜드만 잘 만들고, 영업만 잘하고, 제품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구매, 생산, 유통, 물류, 서비스, 마케팅, 브랜드, 홍보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인 싸움을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맞춰 마케팅 전략도 웹1.0에서 웹2.0으로 변화하고 있다. 웹1.0이 단순계 마케팅이라고 하면, 웹2.0은 복잡계 마케팅이다. 웹1.0 경영자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소비자에게 알려 주려고 한다. “우리 물건이 좋은데 왜 안 사지? 알아봐” 이게 웹1.0 경영자이다. 웹2.0 경영자는 “내부보다 고객이 똑똑하니까 고객한테 먼저 물어보자. 고객하고 얘기해보”라고 한다. 그러면서 고객 속으로 들어간다.

웹2.0의 정신은 참여·개방·공유라고 할 수 있다. 참여는 누구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회사나 대표의 철학이 매우 좋아서 돈을 주지 않아도 기업을 홍보해주는 열성고객을 찾는 것이다. 개방은 오픈 프로세스와 투명한 경영시스템의 문제이다. 기업의 가치를 고객에게 오픈하고 발생된 문제를 소비자에게 묻고 해결하는 등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 공유는 기업의 철학과 비전과 성과를 조직 구성원은

물론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참여·개방·공유는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참여하면 개방되고, 개방되면 공유되고, 공유되면 참여하며, 참여하면 다시 공유되는 형태로 순환되어야 한다. 마치 하나의 개념처럼 움직이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은 진정성이 있을 때만 일어나며, ‘진정성 기반의 브랜딩’이라고 부른다. 어깨띠 매고 1년에 한 번 연탄 나르고, 기금 조금 내면서 생색 내고, 라면 박스 쌓아놓고 사진 찍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것은 진정성이 아니다. 진정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사업으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내부 구성원들이 고민하다가 신기술을 개발해 내는 것이다.

소셜의 핵심은 고객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어 나갈지 고민하고, 고객의 소리를 얼마나 잘 들어주고 진정성 있게 답하느냐의 문제이다. 20세기의 브랜드는 ‘내가 떠드는 것’이었다면, 21세기는 ‘듣고 거기에 반응만 하는 것’이다.

이제 브랜드 매니저의 시대가 아니라 마켓 커뮤니케이터의 시대가 된 것이다. 브랜드 매니저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마켓 커뮤니케이터는 시장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이제는 브랜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브랜드가 돌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 기업 브랜딩은 브랜드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에 훨씬 가깝고, 실체의 문제로 가고 있다. 기업의 철학과 비전, 그에 따른 실천방식과 참여·개방·공유의 소통방식이 소셜 브랜딩의 핵심이다. **김재민**

박대성 화백

예술혼이 시대를 뛰어넘는 작품을 만든다



나는 동양화로 전래 고유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왔다. 1945년생으로 6·25전쟁 중 어린 나이에 팔을 잃는 시련을 겪게 되었고, 외부에 나가면 놀림을 받았다. 부족하지만 나의 글과 그림을 칭찬해준 누나와 신라의 술거와 같은 인물이 되려던 형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 너무 가난해서 솜으로 그림을 그렸고, 새가 진짜 나무인 줄 알고 부딪혀 죽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신라 최고의 화가 술거. 어린 나이에 술거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현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합작해서 '박대성미술관'을 건립 중이다. 술거 때문에 경주를 좋아하게 됐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78년 국전에 출품한 것이 입선되었다. 미술대를 나오지 않은 경력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많았다. 당시에는 국전의 문이 좁아서 한강 이남에서는 내가 최초였고, 이후 8년 연속 입선하면서 나쁜 이야기들도 다 사라졌다.

어느 날 300평이 넘는 호암갤러리에 초대받았는데, 이병철 회장이 왜 대가들만 전시하느냐 젊은 기수들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 넓은 전시장을 어떻게 채울지 걱정이 되어 1년을 거절하기도 했다. 당시 제주도에 가서 풍광을 많이 그렸는데, 천 호짜리를 비롯해서 대작들을 많이 그렸고, 그것이 큰 도전이 되었다.

젊은 시절, 대만 고궁박물관에서 1년 동안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양중명, 양정명, 양우명 삼형제 화백의 주선으로 중국 중앙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이것을 보고 대구에서 화랑 개관전을 부탁해왔다. 그런데 선배 화가로부터 애송이가 어떻게 개관전을 맡았느냐며 건방지다는 말을 들었다.

바로 서울로 월세를 얻어 올라왔다. 79년도 국전이 워낙 부패해 이병철 회장이 국전을 능가하는 것을 만들라는 말에 중앙미술대상전이라는 곳에 출품했다. 1회에 대상 없는 장려상을 받고, 2회 때는 대상을 받았다. 언론에 정규코스를 전혀 밟지 않은 사람이 이번을 났다는 기

사가 줄줄이 나왔다. 그 후로 생활이 좀 넉넉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운영하던 화랑을 팔고, 팔당 봉안마을에 정착한 후 일체 통신을 끊어버리고 공부에 전념하는 한편, 책을 읽고 글도 쓰면서 10년간 수련했다. 그 후로 중국올림픽 특집 기행을 가던 길에 11일을 걸려 백두산 천지에 들어갔고, 붓을 든 이후로 늘 중국을 흠모해왔으며, 목숨 걸로 몽골고원의 고비사막을 향하기도 했다. 또 원시의 뿌리를 보자는 생각에 실크로드와 히말라야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집트, 이란, 이라크를 거쳐 이탈리아 수중도시, 그리고 태국을 거쳐 다녀오기도 했다. 인생은 넓고 깊게 봐야 하는데, 고행에서 얻어지는 소득이야말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돌아와서 불국사 주지 스님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움이 최고인 것 같다고 했더니 1년을 기거하며 그림을 그리게 해주셨다. 그 많은 원시 벨트를 돌 때 우리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 선조는 너무나 훌륭한데, 우리는 가누지를 못한다. 병원이 커지고 교도소가 커지고 대학도 커지지만 우리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신문을 안 본 지가 30년이다. 교육과 먹을거리 등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1차 산업에 있어서도 관리가 없다. 시골에서 풀 때는 사람들이 없고 아침부터 농약을 뿌려댄다. 넓은 들에 사람 없이도 농사가 된다. 후세의 앞날이 암담하다. 이렇게 되면 세계 1위라도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삶이란 것은 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이 오면 감사히 잘 살고 즐겁게 갈 수 있도록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 내가 일군 것은 작든 크든 간에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끝없이 절약한다. 아끼지 않으면 자연이 보호되지 않는다. 지혜롭게 아껴 쓰면 정신이 들고, 대자연의 지혜가 밝아진다. 내가 아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참사랑을 맞볼 수 있다. **KHDI**

한승원 소설가

나의 구도행각, 혹은 천지간의 큰 산인 다산 정약용 탐색하기



서울에서 살던 나는 17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그분과 눈높이가 비슷해야 그분의 삶과 사상을 공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인 장흥으로 낙향했다. 오늘 그런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 말했으면 한다.

최근 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한 학자는 이것을 'Consilience'라고 이야기했다. 국내 어느 학자는 이것을 '통섭'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 숨을 쉬는데, 보통 공기가 허파 속으로 들어가면 건조하기 때문에 코가 적당한 수분을 분사해 허파짜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남녀가 사랑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소나 돼지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소나 돼지와는 달라야 한다. 인문학적인 것과 자연과학적인 것이 잘 통섭되어야만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공부하다 보니 그분이 가장 통섭이 잘 된 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산 선생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다. 소설 쓰기는 나에게 있어 '천명'이다. 하늘의 명령(天命)에 따른 '사업(事業)'이다. 사업은 경제적인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역>에서는 사업의 정의를 '우주의 율동 원리에 따라 천하의 인민에게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인'이다. 다산 정약용은 <대학공의>라는 저서에서 불교인은 마음 다스리는 것을 사업으로 삼지만, 유학자는 사업으로써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다. 선생에게 있어서의 사업은 저술하기였고, 그것을 통해 정심(正心)을 얻곤 했다. 정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覺)이다. 물론 선생의 저술 행위는 주역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업이다.

어느 불교 조각가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부처상을 만들 수 있었냐고 물었다. 그는 "나는 나무 속에 있는 부처님을 꺼내놓기만 한

것일 뿐 한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인간 본연의 몸에 내포된 것이다.

사실 우리 몸 자체가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통섭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다. 원래 있던 원형이다. 주역에서는 본연지성이라고 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한 꺼풀 한 꺼풀씩 세상의 때를 입는다. 불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한 꺼풀 한 꺼풀 벗기기 위해서이다. 천명 역시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도 어질어야 하고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은 원래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산 선생은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다. 혼자 있으면서도 모든 예를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역에서의 본연지성이다.

실학자인 다산 선생은 사실에 의거해서 진리를 찾는 '실사구시'의 삶을 살았다. 당시는 탁상공론만 하며 백성을 도외시한 시대였다. 그러나 다산 선생은 실학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삶인 실사구시의 삶을 행했다.

다산 선생은 또한 '성실'의 의무를 말했다. 첫째, 민족에게 민족의 일원으로서 성실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국민으로서 성실해야 한다. 셋째, 가족에게 친구에게 성실해야 한다. 넷째, 나에게 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성실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까지 나는 천명, 사업, 실사구시, 성실 등 다산 정약용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여러분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살아온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한승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 기업의 상생의 미래,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시장경제시스템이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각각 이윤 극대화와 만족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제도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혁신이 유발되고, 그 결과 경제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도 헌법에 시장경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시장경제시스템이라도 국가마다 약간씩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2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심판의 기능을 하는 준사법적 기능이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기본역할을 바탕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따른 상반기 성과로 우선 기업의 자의적인 변화를 유도해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의 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을 촉진해 왔다.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한 답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엄중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왔다.

올해 하반기 정책 방향은 4가지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 첫째, 유통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서 중소기업의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비롯한 소비자 정보제공시스템을 정착,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자상거래 환경구축에 노력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둘 예정이다. 첫째, 민생 관련과 기술혁신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기술혁신이 급격히 일어나는 IT 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이 독점하는 기업용 서버,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나 기계, 화학 분야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다.

셋째, 경쟁 제한적인 규제 개선과 산업별 시장 분석을 통해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넷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노력이다.

다섯째,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다. 여섯째, 소비자 소송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해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 확충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슨 일이든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처방을 해나간다는 자세로 어려운 국민 경제를 감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수**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

21세기 위기를 지배하라 -마키아벨리 군주론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공자와 맹자는 덕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1400년대 후반에 태어나 1500년대 초반에 떠난 마키아벨리는 덕치란 리더의 지향점일 뿐 실사구시는 될 수 없다고 했다. 마키아벨리가 떠난 지 500여 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현재 그가 남긴 흔적이 가진 가치를 생각해보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제주라는 관광지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상황이 어렵고 의사결정이 복잡해질수록, 리더가 주관을 가지지 못한 채 꿈만 좇게 되면 현실을 무너뜨리고 만다. 즉, 편안한 환상에 반해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며 살아간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군인이며 문인인 카이사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이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리더라면 믿고 싶지 않은 사실도 믿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일반인과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맹자는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현실은 결국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했으나 마키아벨리는 리더의 길은 냉혹한 현실을 다루며 고귀한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수단이 없던 시절인 고대 로마는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되었고, 소아시아나 팔레스타인, 그리스에서 만든 것들을 프랑스 지방에서 소비하는 것이 당연한 개방된 경제체제였다. 그러나 476년 로마는 멸망하여 수백, 수천 개 자급자족 형태의 고립 경제로 분화된다.

이후 가톨릭이 권위를 차지하며 다시 뭉치게 되지만 세력의 정점을 찍은 교회는 8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으로 쇠퇴하게 되고, 전쟁으로 인한 원활한 물류의 흐름으로 인해 지중해를 중심으로 권세가 개편되어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번방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생로를 찾기 위해 항로를

개척해 각각 신대륙과 인도에 이르게 되면서 근대가 시작된다. 동시에 경제와 정치에 있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 현대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돈에 시기에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것이다.

당시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자신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를 앞세워 통일을 시작하지만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전염병 앞에 굴복하고 만다. 이탈리아에 내린 한 줄기 빛이라 여긴 체사레 보르자의 몰락을 본 마키아벨리는 많은 고민과 함께 <군주론>을 남겼고, 이는 서양정치사상의 빛나는 고전이 되었다.

인간을 신처럼 여기고 이끌어도, 혹은 짐승이라 여겨 통치해도 결국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 적극적으로 된다. 가족의 죽음은 있어도 재산의 상실은 잊지 못한다. 성실과 신의는 필요하지만 악인의 유혹에 넘어갈 만큼 명청해서는 안 된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리더는 덕이 아닌 힘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가능성의 기술로 봤다. 국가역량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영할 경로를 찾는 것이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경영자나 리더는 끊임없이 가능성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군주와 리더의 임무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은 인생의 방식이지만 특히 리더로서 자신의 비즈니스와 조직을 바라보는 모습일 것이며 이는 위기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김경준**

과학칼럼니스트와 사회과학자의 융합 토론

주제 발표



최근 융합이란 단어만큼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없다. 융합 현상에는 지식융합, 기술융합, 산업융합 등 3가지가 있다. 지식융합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기술융합은 기술과 기술이 만나는 것이다. 산업융합은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융합기술이란 말은 2001년 미국이 20년 뒤인

2020년에 세계를 지배할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1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여 토론한 끝에 만든 용어이다.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인지과학 등 4가지 기술이 근간이 돼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융합기술의 정의이다.

2003년에 나온 <새로운 인문주의자들>이라는 책에서는 과학자 중에서 인문학을 융합한 사람들을 새로운 인문주의자들로 정의하고, 이들이 앞으로 21세기의 세계 지식인 사회를 지배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문학자들은 과학, 공학을 잘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식융합, 기술융합, 산업융합 등 3대 융합 인프라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추세에서 중요한 것이 산업융합이다. 산업융합의 핵심은 정보기술인데, 우리나라 정보기술 인프라는 실질적으로 세계 1위다. 결국 산업융합에서 세계적인 선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애플 제품은 기술과 교양지식의 교차로에서 있다”고 했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으로 애플 제품이 나왔다는 말이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는 결코 새로운 뭔가를 발명한 것이 없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모두 훔쳤다. 밖으로 나가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최선의 것이 발견되면 가져와서 조합했을 뿐이다. 그것이 그들이 이룩한 창조다. 남이 다 해놓은 것을 보고 빨리빨리 모아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창의성이다. 새롭게 만들려는 것은 창의가 아니다. 윌리엄 두건 컬럼비아대 경영대 교수는 “이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누구도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 없다. 창조는 곧 창조적 조합이다. 창조는 찾고 조합하는 것이다. 즉 융합이 창조다”라고 했다.

융합하는 국가와 국민은 흥하고, 융합하지 못하는 국가와 국민은 망한다. 즉, 융합하는 회사는 흥하고, 융합하지 못하는 회사는 망한다. 바로 융합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하지만 태풍이 올 때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으면 하늘이 맑게 보인다. 잘 못 느낀다는 것이다. 지금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보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선형발전론과 사회결정론이다. 선형발전론은 똑똑한 사람이 과학을 발명하면 여기

에 기술이 적용돼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사회결정론은 사회적 수요가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기술발전이 다시 과학의 진보를 이루고, 이것이 경제발전으로 간다는 이론으로 20세기 후반에 나온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21세기는 지금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중 하나가 인문학과 산업기술의 융합이다.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만든 것이 아이폰, 아이패드이다. 21세기에는 기술은 많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산업기술이 발전하고, 결국 경제발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첫 번째 21세기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새로운 부분의 문제도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 특히 노인의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잘살고 있는 줄 알지만, 사회보장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문제를 기술로 풀어가야 한다. 이제는 기술이 기업을 위한 첨단 공학기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들어줘야 한다.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로봇 개발 등이 그 예이다. 사회발전 중에서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한 기술인데, 전기가 없는 아프리카 국가를 위해 자전거로 통을 돌리는 세탁기, 라이프 스트로우(생명의 빨대)라는 흙탕물 정수기, 먼 곳에서도 쉽게 물을 길러올 수 있는 큐드럼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따뜻하게 쓰여야지 돈벌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에 대한 21세기 새로운 철학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현명하다면 21세기의 새로운 사상이나 조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2004년도에 이미 “21세기에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술혁명이 사회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며, 돈을 벌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론

좌장: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기 회장: 두 분 말씀 잘 들었다. 먼저 21세기에는 왜 융합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이인식 소장: 융합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이 서로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술융합이 생기는 것이다. 기술융합의 극히 일부인 스마트폰 하나를 두고 온 세상이 바뀌었다고 난리다. 앞으로는 기술융합으로 온 세상이 정신없이 바뀔 것이다. 기업에서는 융합의 추세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도 학문적으로 지식융합을 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장만기 회장: 융합의 물결에 CEO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

염재호 교수: 학자는 미래를 미리 고민해야 하지만 CEO들은 단기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태풍의 눈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융합이 필요하다. 20세기는 모든 문제를 작은 분야까지 쪼개서 전문성으로 풀어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잘 훈련된 무능력에 불과하다. 사고의 상상력도 한 가지에만 고착되어 있으면 문제를 못 풀지만 입체화시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진다. 복지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21세기 변화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만기 회장: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서 잘 융합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다.

이인식 소장: 안타깝지만 국내 인문학자 중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자신의 연구에 보탬이 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와중에 금년 3월에 지식경제부가 '기술인문융합창작소'를 만들었다.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지만 기술과 인문학을 해보자는 의도다. 과학기술자들은 인문학을 쉽게 하지만 인문학자들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인문학자들에게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사례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그 보수적이라는 경제학에서조차 과학기술의 방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융합이 나오는 세상이다.

장만기 회장: 미래 융합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염재호 교수: 지식에는 형식지와 암묵지가 있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지식은 형식지이다. 암묵지는 내재화되어 있는 지식이다. 이제는 암묵지를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암묵지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반성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에서는 그림에 코드를 입혀서 음악으로 바꾸기도 하고, 음악에 색을 입혀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듯 융합형 인재를 한 가지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만기 회장: 이인식 소장은 최근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책에서 '청색기술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이인식 소장: 우리 주변의 생물체나 무생물 모두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가진 구조와 기능이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이것을 그대로 본뜨거나 영감을 얻어서 물건을 만든다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

'청색경제'는 벨기에의 군터 파울리가 만든 용어인데, 유엔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100대 자연 친화적인 청색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1억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모델을 한국에 도입한다면 일자리 100만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만든 용어가 '청색기술'이다. 차기 정부에서 청색기술로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만기 회장: 융합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남에게 내어줘야 하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오픈마인드가 중요하다. 우리에게서 모두가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있다. 지금의 위기를 맞아 융합이론으로 경제문제, 그리고 세계의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 ■■■■

[회원 소식]

■ 유상정(前 IBK기업은행 부행장) IBK연금보험 대표이사 취임

지난 7월 2일 제2대 IBK연금보험 신임사장으로 유상정 前 IBK기업은행 부행장이 선임되었다. 유상정 대표는 IBK기업은행에서 IB 본부장, 기업고객 본부장, 리스크관리 본부장, 여신기획부장 등을 역임한 리스크 전문가로 IBK기업은행 내에서도 탁월한 리더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 이충희(주)듀오 ETRO 대표이사는 지난 7월 17일 육군 2사단에서 '군 생활의 성공이 사회생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 황을문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회장은 지난 7월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노비즈 글로벌 포럼 2012'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 커닝햄그룹(부사장 니나 안)은 지난 7월 26일 건설회관 2층에서 세계형 테마파크 및 쇼핑몰, 리조트 성공 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 커닝햄은 전 세계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테마파크, 리테일, 식음, 리조트 등 레저 복합시설을 디자인하고 있는 커닝햄만의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건축법을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쉬 회장은 지난 7월 효(孝) 문화 확산 및 계승발전을 위한 세계효운동본부의 명예총재로 위촉되어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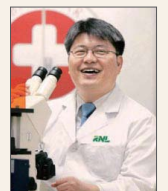
■ 동국산업(부회장 정문호)은 포스코 담당자들과 함께 브라질로 향해 포르테 알레그레(Porte Alegre)에 위치한 트라몬티나(Tramontina)와 거래계약을 맺는 데 성공하였다. 트라몬티나는 브라질 민족기업이라 불릴 정도로 유서가 깊으며, 각종 양식기 및 공업용 절단제품 일체를 생산하는 대규모 업체이다. 이번 트라몬티나와 거래하게 된 물량은 컨테이너선 5개에 싣는 물량으로 동국산업 단일 수출량으로 최대이다.



■ 박재돈 한국파마 회장이 '제4차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에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헌정식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진행해온 행사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과 산업훈장을 수상한 중소기업인 중 모범 경제인을 선정해 이들의 흉상과 공적을 동판에 새겨 헌정하고 있으며, 이번 헌정식에서는 박재돈 회장을 포함해 총 33명의 기업인이 선정되었다.



■ 알앤엘바이오(회장 라정찬)는 7월 30일, 터키 이스탄불의 디비이락(DB ilac)사와 2억 5백만 불에 달하는 자가 줄기세포 기술 수출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 디비이락사는 터키 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EU 국가와 중동 아랍권 환자를 자국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해 미국의 셀텍스테라퓨틱스사에 지방 태반 자가 타가 줄기세포 등 자사의 줄기세포 전체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 (주)동서식품 대학생 1차 멘토링 클래스 개최

동서식품은 지난 8월 9일부터 22일까지 홍대 인근 카페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클래스를 개최했다. 멘토링 클래스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문학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고, 글 솜씨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9일 첫 번째 시간에는 안도현 시인의 글쓰기 노하우를 주제로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6일 2차 멘토링 클래스에는 편혜영, 윤성희 작



가와 함께 문학토크쇼 형식으로, 마지막 3차 멘토링 클래스는 22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의 운영위원장이자 <인간시장>의 저자인 김홍신 작가의 창작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말 산업박람회에 맞춰 '말타기 캠페인 송'을 공개했다. 캠페인 송에는 승마운동 효과와 말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이와 관련해 8월 10일부터는 말 산업박람회 트위터(@horse_exp)를 통해 캠페인 송 이름 짓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제안작 중 최종 선정작은 공식 곡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총장 조남철**가 주최하는 제3회 재능 기부 콘서트 '꿈꾸는 대학로'가 8월 21일 대학로 방송대학TV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달변에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이 출연해 '열정을 요리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전자현악그룹 스텔라의 공연이 함께 어우러진 토크 콘서트로 진행되었다.

- **(주)한일시멘트대표이사 허기호** 봉사단 'WITH'는 8월 23일 충북 단양에서 차상위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WITH봉사단은 사례관리팀의 요청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해 아이들의 교육과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 가정을 찾아 수선, 청소, 물품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재욱**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2012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SKY Festival)'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최대의 야외 음악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번 스카이 페스티벌은 총 3일간 매일 저녁 7시마

다 인천공항공사 청사 앞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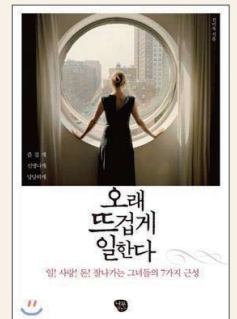
- **세스코(회장 전순표)**는 9월 2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위생을 꼼꼼히 관리해 주고 해충 고민을 덜어 주는 '전 국민 해충퇴치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 국민 해충퇴치 캠페인은 지난 6월 18일부터 시작된 세스코의 무료진단 서비스와 더불어 진행되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가정집은 물론 요식업장에도 해충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해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해충 퇴치와 예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금)**은 오는 9월 7일부터 모스크바 루즈키니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러시아 대통령컵 국제 삼보대회'에 초청받았다. 러시아 대통령컵 국제 삼보대회는 해마다 러시아 삼보연맹으로부터 초청받은 국가만 참석할 수 있는 대회로 한국은 극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초청받았으며, 9개 체급 모두에 선수들을 파견할 예정이다.



- **전미옥 CMI연구소 대표**는 최근 <오래 뜨겁게 일한다>라는 제목의 신간을 출간하였다. 전 대표는 여성 자기계발 및 커리어 컨설턴트로서 여성 커리어 관련 칼럼 연재, 강연 등으로 여성의 자기계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여자의 언어로 세일즈하라>, <성공하는 여성의 자기경영노트>등 40여 권이 있다.



■ **노병천 한국전락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최근 <서른과 마흔 사이 인생방법>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서른과 마흔 사이의 인생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서른과 마흔 사이의 시절이 무언가 완벽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하는 시기이고, 그렇기에 또 좌절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저자는 서른과 마흔 사이를 현명하게 잘 넘어가면 기나 긴 인생의 항로에서 길을 잃지 않을 등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가재산 (주)조인스 HR 대표이사**는 최근 <셈본 인생경영>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쁜 습관의 틀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부록에서는 저자가 직접 사용한 방식을 제시해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습관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 **윤백중 삼화비닐(주) 회장**은 최근 <한국의 고용구조>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 내용을 고용구조 측면에서 분석하고 조명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고 있다. 저자는 각종 통계 수치를 인용한 조사 분석을 통해 고용의 구조변화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회원]

■ **라정찬 (주)알앤엘바이오 회장(법인회원)**

알앤엘바이오는 대한민국 대표 성체줄기세포 전문 바이오기업으로 지방조직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에 있어 세계 No.1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희귀 난치성 질환 및 기타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 진행을 통해 치료제 상용화에 정진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1696-7번지
- 전화번호 : 02-874-0686
- 홈페이지 : <http://rnl.co.kr>

■ **채송하 MANUKA NATURALS Co.(개인회원)**

마누카내추럴 코리아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천연 꿀을 이용하여 만든 자연보호의 천연 화장품으로 아토피, 여드름 등 민감성 피부 치료뿐만 아니라 평생 아름다운 피부미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으로 대중에게 인기가 높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4-8 세종연구소 단지 101호
- 전화번호 : 031-701-9811
- 홈페이지 : www.manukanaturals.co.kr

[소모임 소식]

■ **이중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이윤수 / 총무 고지석)**은 8월 27일 오후 6시 30분 교대역 부근 '설국'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모임은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회원들과 함께 일본을 여행하기로 했다.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박춘봉 / 총무 정지환)**은 8월 휴회 후 아래와 같이 9월 정기모임을 갖는다. 에세이클럽은 관심 있는 회원들의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

- 일시 : 2012년 9월 10일(월) 18:30-21:00
- 장소 : 문학의 집 서울
- 문의 : 정용달 팀장(Tel. 02-445-1949)

[연구원 소식]

■ **TPT 멘토대학 'NGO 강연 나눔' 세 번째 이야기 - 강연 기부 프로젝트 'We대한 토크' 개최**
위스타트(We Start) 운동본부와 본원이 함께하는 'NGO



강연나눔' 세 번째 이야기인 'We대한 토크'가 지난 7월 10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렸다. 약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에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인 헤민 스님이 강단에 올랐다. 헤민 스님은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 출입문이 두개 달린 화장실을 네가구가 함께 썼던 사연을 털어놓으며, 본인의 아픔을 먼저 드러내고, '넌 어머니, 이제 관찰아'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

해 주었다. 스님은 “한 아이가 잘 성장하려면 가족은 물론 아이가 다니는 학교, 마을 전체가 잘 돼야 한다”며 “여러분도 위스타트 운동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회는 트위터, 페이스북에서만 약 24만 명과 마음 다스리기 지혜를 나누고,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는 해민 스님이 무료 강연으로 재능 기부에 나섰고, 참가자들이 낸 수강료 1만 원을 모아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연중행사로 기획되었다.

■ 장만기 본원 회장, <CEO의 서재> 출간 및 출판기념회



지난 7월 11일, 장만기 본원 회장을 비롯한 우리 시대 대표 CEO 8인의 이야기를 담은 <CEO의 서재> 출간을 기념하는 강연회가 종로구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를 겸한 이날 강연회 1부는 장만기 회장과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의 강연이, 2부에서는 교보문고 독서경영연구소 송영숙 소장의 진행으로 장만기 회장과 신현철 부회장의 대담이 진행되었다. ‘경영은 인문정신의 예술이다’를 부제로 한 <CEO의 서재>는 대한민국 대표 CEO들의 사유의 공간, 사적인 삶의 내면을 엿볼 수 있고, 더불어 책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어떻게 경영에 접목시켰는지 그들의 경영철학을 만나볼 수 있다.

■ 공감을 만들어 가는 ‘2012 소통아카데미 4기’ 개강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규)와 본원이 사회 구성원 간 활발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마련한 ‘2012 소통아카데미 4기’가 9월 5일 개강한다. 9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방송대에서 진행되는 4기 강좌에는 황수관 연세대 외래교수, 엄길청 경기대 교수, 최창호 알파브레인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소통의 의미와 대화의 정신, 소통으로 행복 찾기, 소통기술 체험하기 등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소통아카데미 5기는 10월 10일에서 24일까지 개최되며, 강연은 방송대TV OUN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문의 : 정용달 팀장(Tel. 02-445-1949)

■ 매주 목요일 개최되고 있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위해 회원 및 관계사에서 도서를 협찬해 주고 있다. 협찬에 응해 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윤백중 (주)심화비닐 회장 도서 120권 <한국의 고용구조>

- 심재석 심양미디어 사장 도서 10권 <이슬람>
- 노병천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 원장 도서 20권 <서른과 마흔 사이 인생방법>

[연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2012년 7~8월)]

■ 법인회원

- 한국FPSB(회장 윤병철)
- (주)KCTC(부회장 이윤수)
- 광주요(회장 조태권)

■ 개인회원

- 김상희 웰코스 회장
- 김학수 (주)동서식품 감사
- 심상기 서울문화사 회장
- 안상일 유림물산 회장
- 우덕성 썬테일러 사장
- 이용국 신원헬트공업(주) 회장
- 이원기 원풍물산(주) 회장
- 이해성 (주)덕성 부회장
-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
- 차진영 성부트레이딩(주) 사장
- 최인숙 (주)마리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탁재용 흥안실업 회장
- 한홍섭 (주)에프엔에프 대표이사
- 허윤석 우리투자증권 부장
- 홍인표 (주)셀트리온 디바이어 대표이사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KCTC	이윤수 대표이사	9월 1일
(주)봄엔	최용호 대표이사	9월 1일
(주)창영전자	박세근 회장	9월 2일
글리프스	박준서 대표이사	9월 4일
하이네트웍(주)	권성욱 대표이사	9월 21일
동익건설(주)	박성래 회장	9월 29일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황경호 이사	9월 30일
(주)다산	윤영상 회장	10월 1일
성부트레이딩(주)	차진영 사장	10월 1일
(주)성신신소재	임병문 회장	10월 1일
한신전선(주)	김영재 회장	10월 10일
흥안실업(주)	탁재용 회장	10월 15일

한여름 무더위도 뛰어넘는 전국의 평생학습 열기

[교육컨설팅 소식]

■ 본격 무더위 속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7~8월 100여 회 진행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초입, 지방자치아카데미는 그간 수차례의 비 소식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보다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이 운영되었다.



7월 4일 경남 함안에서는 전 함안군수이자 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원장인 공창석 원장을 모시고 아라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하

여 현 상황에서의 발전방안에 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7월 12일 장성에서는 가수이자 문화 콘텐츠 기획자인 이안 씨를 모시고 한국 문화와 아리랑이 가진 문화적 잠재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일 무안에서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모시고 지역 홍보 전략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진행했다. 25일 대전 유성구에서는 국내 5대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이무석 전남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마음경영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8월 11일 거제에서는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를 모시고 입시 전망과 공부법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한편 8월 16일 상주에서는故 최영희 무용가의 제자인 김영순 탈북 무용가를 모시고 새로운 북한의 현실과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지난 7~8월 동안 전국 60여 개 지자체에서 100여 회에 이르는 교육이 진행되어 무더위를 무색하게 하는 배움의 열정이 전국에 퍼져나갔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JDC, 제주 첨단과학단지 내 중국 녹지그룹 스마트워크센터 입주계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는 8월 14일 중국 녹지그룹유한공사(총회장 장옥량, 이하 녹지그룹)와 제

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스마트워크센터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내 기업평가 87위, 2011년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한 부동산 전문 개발기업으로 JDC와 총투자비 약 1조 원 규모의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합의각서(MOA)를 지난 11월 체결했다. 이번 MOA 체결로 헬스케어타운 총 사업면적 153만 9,000㎡ 가운데 77만 8,000여 ㎡에 의료 R&D센터,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 녹지그룹은 1단계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사업을 시작으로 2단계 웰니스몰, 웰빙푸드존, 힐링가든 등의 시설사업이 추진되고 3단계로 R&D센터, 안티에이징센터 등의 시설을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이다.

■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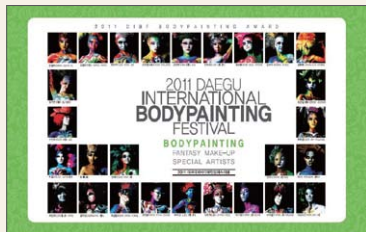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해 펼쳐지는 축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흥겨움과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로 기대되고 있다. 하이라이트가 될 축제 퍼레이드 '댄싱카니발'은 현재 전국에서 30개 팀, 3,5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일시: 2012년 9월 19~22일
- 장소: 강원 원주시 따뚜공영장 등



■ 대구 국제바디페인팅 페스티벌

세계 최정상급의 바디페인팅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환상의 무대, 대구 국제바디페인팅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인기 가수들이 펼치는 축하



공연, 화려한 불꽃놀이, 마술,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이번 페스티벌은 화려한 색의 향연에 빠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일시: 2012년 9월 1~2일
- 장소: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 함양 물레방아골 축제

함양군 앞에 붙는 수석어 가운데 '물레방아고장'이라는 것이 있다. 1780년 사신 일행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열하일



기를 통해 물레방아를 처음으로 소개한 곳이 함양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념하여 물레방아골 축제가 매년 삼림공원 및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 일시: 2012년 9월 21~23일
- 장소: 경남 함양군 삼림공원 일원

■ 경주 술과 떡 잔치

경주와 전국의 전통 떡과 술을 한자리에 모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맛과 멋, 그리고 흥을 널리 알리고, 천년고도 경주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함께 알려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 경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문화관광 축제가 열린다.

- 일시: 2012년 10월 13~17일
- 장소: 경북 경주시 봉황대 일원



■ 계룡 軍 문화 축제

2012 계룡 軍 문화 축제는 '軍 문화의 大 향연, 평화와 화합의 메아리'라는 주제로 육해공군-해병대 군악/의장, 해외군악대 등의 공연과 특공무술, 헌병 모터사이카, 블랙이글스 에어쇼, 거리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 일시: 2012년 10월 11~14일
- 장소: 충남 계룡시 계룡대



■ 정선 아리랑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리로서, 전승 보존과 지역발전 및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한국적인 민속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아리랑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축제이다. 주요 행사로 칠현제례, 뗏목아리리 재연, 주막아리리 한마당 등이 열릴 예정이다.

- 일시: 2012년 10월 1~4일
- 장소: 강원 정선군 정선읍 공설운동장 일원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만남

인간개발연구원 멤버십은 건강한 습관,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사회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 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회원서비스 안내

1. 온라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경영자연구회 후기, 회원칼럼, 회원소식, KHDI 웹진)
- KHDI 라이브러리(강연동영상, 녹취록 다운로드)
- 홈페이지
(회원사 수상 및 경조사, 신제품 등 회원동정 게재 및 홍보)

2. 오프라인 서비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회원가 우대 및 면제, 강연CD, 녹취록 매주 우송, 경영도서 제공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회원커뮤니티 활동
-친목과 교류를 위한 이종기업 협력 동우회 (이종1그룹,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골프클럽(인경회), Young Ceo Forum, 차이나클럽,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유료 참석
- 국내외 시찰 Program
- 회원친선행사(찾아가는 CEO교실, 회원사방문, 송년파티 외)
- 정기 간행물 제공
- 기업 교육컨설팅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심사 ▶ 연회비납부 ▶ 회원활동

서비스 구분	서비스 항목	특별 할인	법인 회원	세미나 회원	개인 회원	오디오 회원	온라인 평생회원	후원/나눔 회원
오프라인	회원혜택 적용 인원수	10인	5인	1인	1인	1인	1인	후원, 강연, 재능기부 시 정회원 예우 ※본 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매주 목요일 개최)	면제/2인	면제/1인	면제/1인	회원가	비회원가	비회원가	
	회원 커뮤니티 가입자격	○	○	○	○			
	회원친선행사(무료, 유료)	○	○	○	○			
	기업소식 및 동정홍보 (매거진, 이메일, 팩스, 유인물배포)	○	○	○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	○	○			
	국내외 산업시찰 참가비 할인	○	○	○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무료, 유료)	○	○	○	○			
	조찬세미나 강연 CD 매주 발송 정기 간행물 및 도서 제공	5개	3개	1개	1개	1개 [도서제외]	별도구매	
		등록임원에게 우송연 2회		도서는 세미나 참가시 제공		정기간행물 발송		
	교육컨설팅(명사섭외, 연수프로그램기획등)	○	○	○	○			
온라인	KHDI 라이브러리 아이디 부여(동영상, 녹취록 제공)	○	○	○	○		○	
	강연 후기 이메일 서비스	○	○	○	○	○	○	
회비	연회비/온라인 평생회원은 1회 납부	650만원	390만원	290만원	130만원	60만원	100만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02-910003-99904 예금주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문의 : 경영자교육팀 T. 02-445-1948



인간의 삶은 소중하다

최근 인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에 이르고,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면, 남한 5천만, 북한 2천4백만, 그리고 전 세계 180여 국가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800만을 포함해 총 8천2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필자는 매일 새벽, 기도시간에 인간개발연구원이 비전으로 실현하고자 한 세계의 평화(Peace), 국가의 번영(prosperity), 인간의 행복(Happiness)을 위해 기도한다. 더불어 전 세계 70억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8천만 사람들의 인간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통계적인 숫자에 매몰되기 쉬운 '인생의 소중함'을 되짚어 본다.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리아의 비극적인 대량 학살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총기 사건에 의한 희생 등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 피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생생하게 목격되고 있는 범죄에 의한 인명 피해이다. 더구나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부강한 경제국가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한마디로 인간 생명과 그 삶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가치'는 온 천하를 주고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다고 성서는 말한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근본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모르는 인간 무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인생은 한 번 멋지게 살만 한 것'이며, 더불어 인간 교육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교훈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자기의 생애를 통해 꼭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이 있고, 죽기 전에 반드시 실행해서 성취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만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성숙된 힘이 원천이 되어 보통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능히 해내는 기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09년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아웃라이어(OUTLIERS)>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하루 3시간씩 최소 10년 이상)동안 계속된 노력 끝에 거둔 결실은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훨씬 뛰어 넘는 특별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들의 성공은 대개 보통 사람들이 30초 만에 포기하는 것을 22분간 붙잡고 늘어지는 끈기와 지구력, 그리고 의지의 선물이라고 했다.

석가모니 부처는 인생을 고행(苦海)이라고 했지만 고행에 대해 생각해 보면 괴로운 것은 인생이 아니고, 인간은 오히려 괴로움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산모가 생명을 앗아갈 듯한 산고를 치른 끝에 출산을 하듯 위대한 인간은 어려움을 통해서 태어난다.

실패는 괴롭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석가모니 부처는 설산의 고행을 통해서 일체유심론(一切唯心論)의 깨달음을 얻었고, 예수도 40일간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인류 구세주의 비전과 사명을 얻게 되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인생고를 겪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을 원망하고, 환경과 시대, 운명을 탓하는 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콤플렉스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공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고, 문제의 원인을 타인이나 외부에서 찾지 않고 항상 자기 내면에서 찾는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성공의 비밀을 찾기 바란다. 로마를 이끌었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색하고 행동하는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만 성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는 역대 로마 황제 중 가장 오랜 기간 전쟁터에서 자신의 삶을 보낸 황제였다. 그의 명저 <명상론>은 전쟁터에서 내놓은 일기로 유명하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인정 중 최고의 인정은 자신으로부터 받는 인정이며, 자신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힘들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상은 한 번 멋지게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도 소중하다. 이 소중한 인생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그 소중함을 빼앗길 수 없을 것이다. **김재**

집단의 두 얼굴

용모가 출중하고 다재다능한 영국 신사 프랜시스 골턴은 1865년 발표한 논문에서 교배기술로 동식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것처럼 우수한 인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우생학(eugenics)의 아버지라 불린다.

1907년 85세에도 지적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골턴은 우연히 소의 무게를 맞히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대회를 구경했다. 내기에 참가한 800명은 대부분 소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골턴은 대중의 어리석음을 입증하고 싶어 참가자들이 써낸 추정치의 평균값을 뽑아 보았다. 소 무게의 평균값은 1,197파운드로 나왔다. 참가자들이 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무게와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 골턴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의 무게는 측정 결과 1,198파운드라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해 3월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서 골턴은 군중의 판단이 완벽했음을 인정하면서,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므로 "민주주의도 생각한 것보다 신뢰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썼다.

골턴의 사례는 어떤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이 특별히 박식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집단 전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영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서로위키는 이러한 집단의 지적 능력, 곧 집단지능(collective intelligence)을 '대중의 지혜(wisdom-of-crowds)'라고 명명하고, 2004년 5월 펴낸 같은 제목의 저서에서 군중의 어리석음과 광기를 경멸하는 견해에 도전하는 논리를 펼쳤다.

집단을 비하한 발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가령 영국 역사학자인 토머스 칼라일은 "나는 개인이 모르는 것을 집단이 알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광기 어린 개인은 드물지만, 집단에는 그런 분위기가 항상 존재한다"고 단정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귀스타브 르 봉은 "집단 내에 쌓여 가는 것은 재치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집단은 높은 지능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소수 엘리트보다 언제나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서로위키는 대중의 지혜 효과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이 가끔 엉망이 되지만 큰 탈 없이 작동하고, 새벽에 동네 편의점에 가서 항상 우유를 살 수 있는 까닭도 대중의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문가의 말만 듣지 말고 대중에게 답을 물어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집단이 엉뚱한 의사결정을 내린 역사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630년대에 네덜란드를 휩쓴 튜립 광기(tulipomania)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기 거품의 하나이다. 1636년 튜립 알뿌리 하나를 살 돈이면 살진 소 4마리나 밀 24톤, 포도주 2통 또는 은제 컵 하나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1637년 거품이 터지자 목수의 연봉보다 20배나 더 비쌌던 튜립 알뿌리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끝없는 낙관론이 팽배하여 닷컴 기업에의 투자 열기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닷컴 거품(dotcom bubble)이 급격히 빠지면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쪽박을 차야 했다.

두 가지 거품 사례는 사람이 무리를 지어 우르르 몰려다니는 떼거리(herd) 행동을 일삼는 군집 동물임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요컨대 집단의 구성원은 떼거리의 영향을 받아 얼마든지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집단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행동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지식인 대부분이 외래어인 집단지능(CI)을 제멋대로 '집단지성'이라고 번역해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낮간지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 **▶▶▶**



● 이인식 소장

1945년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이며, 과학문화연구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KAIST 겸직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과학 칼럼니스트 1호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에 470편 이상의 고정 칼럼을, 월간조선, 과학동아, 한겨레21 등에 160편 이상의 기명 칼럼을 연재했으며, 2011년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월간지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제1회 한국공학한림원 해동상, 제47회 한국출판문화상, 2008년 서울대 자랑스런 전자동문상을 수상했으며, <지식의 대응함>,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이인식의 멋진 과학> 등 40여 종의 저서가 있다.

www.hwayo.com

- 2010 우리술 품평회 증류소주부문 대상 수상
- 2010 G20 Signature 칵테일 선정
- 2008 월드셀렉션 금상 수상
- 2007 IWSC 우수상

우리 쌀로 만든 귀한 술 쌀 소주, 화요(火堯)



화요(火堯) 쌀이 빚어낸 최고의 가치, 높고 존귀한 술, 화요(火堯)



화요 인더락
화요의 깊은 향을 잘 느낄 수 있는 칵테일

화요 판매처

직영점 이천점 031)632-4864 청담점 02)3446-4800 가회점 02)741-4801 | 현대백화점 본점(압구정) 02)547-2233 무역센터점 02)552-2233 신촌점 02)3145-2233 중동점 02)623-2233
천호점 02)488-2233 | 롯데백화점 본점(소공동) 02)771-2500 강남점 02)531-2500 잠실점 02)411-2500 분당점 031)738-2500 | 신세계백화점 본점(충무로) 1588-1234 강남점 1588-1234 |
마트 롯데마트 (전국 84개 전점입점) 홈플러스 (전국 96개 전점입점) 플러스원 (천안) 041)569-7078 | 면세점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롯데면세점)

다들 물어봐, 왜 화요를 마시냐? 우리 쌀로 만든 귀한 술, 화요(火堯) 증류소주. 비드오에 따르면, 증류소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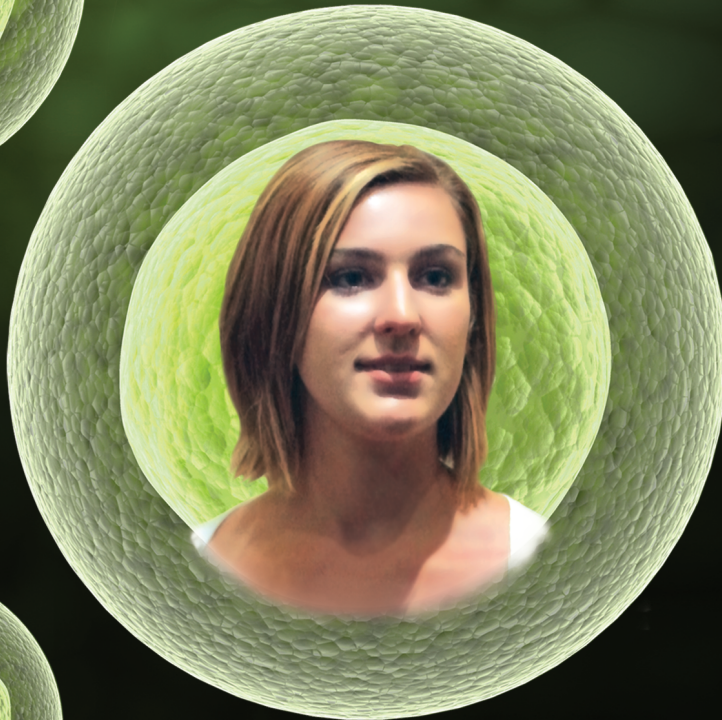
Thank you, Korea! Thank you, RNL BIO!

세계가 먼저 인정한 성체지방줄기세포배양기술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기술을 이끄는 힘은 건강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의 변치않는 자부심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세홍 🇰🇷
(RNL BIO 10,780번째 고객)



“Thank you”

Chloe 🇺🇸
(RNL BIO 14,236번째 고객)



“ありがとう”

なおこ 🇯🇵
(RNL BIO 263번째 고객)



“Merci”

Benjamin 🇫🇷
(RNL BIO 3,235번째 고객)

세계 최초 통합 줄기세포 은행을 설립한 알앤엘바이오는 미국에 3억 3천만불의 기술 수출에 성공하고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에 진출, 전 세계에 줄기세포기술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알앤엘바이오에서 당신의 건강과 미래를 준비하세요! 줄기세포 보관 상담문의 080-572-2113